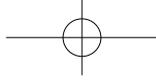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불기 2561년
 통권 15호

禪



대한불교조계종
 재단법인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www.seonsujoa.org



● ● ● 禪, 붓을 만나다



한시부채

잠시 개었다 비 내리고 내리다 다시 개니
하늘의 이치가 이렇진대 세상인심이야 어떠랴.
나를 높이다가는 곧 도리어 나를 헐뜯고
명리를 피하다가는 돌이켜 스스로 공명을 구한다.
꽃 피고 지는 것을 봄이 어찌 상관하겠는가.
구름이 오고 구름이 가도 산은 다투지 않는 법.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꼭 새겨두기를
기쁨을 취한들 평생 즐거움을 누릴 곳은 없다는 것을.

- 매월당

벽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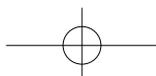
1901년 경북 월성 출생.

1938년 경봉스님은 은사로 득도.

청렴근검하고 온화한 성품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불교 중흥의 밑거름이 되다.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2대, 3대 중앙종회 의장, 동국학원 이사장 역임.

1987년 통도사 적묵당에서 세수 87세, 법랍 53세로 원적에 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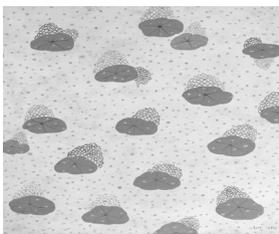


글 순서

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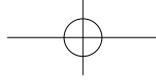
불기 2561년
통권 15호

- 2 禪, 붓을 만나다
 매월당 한시 부채 / 벽안 스님
- 4 지혜의 공간⑨
 대혜 보각 선사 『종문무고 (44화~56화)』 / 연관 스님
- 8 일상 속 수행
 발가락이 옷을 입다 / 법념 스님
- 11 禪사상과 수행②
 선불교의 이해 / 월암 스님
- 14 수행의 현장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 3 / 박희승, 홍광표
- 18 우리 말 선사어록
 도량 먹은 가히 / 오윤희
- 21 쉬고, 또 쉬고
 부드럽게 안아 주어라 / 희상 스님
- 22 수행자의 서가
 바리때 하나의 노래, 『일발가(一鉢歌)』 / 여현 스님
- 24 사찰숲 이야기
 정혜결사의 본산, 송광사 / 박희준
- 28 역사 속 재가수행자⑤
 폭포소리에 깨달은 소동파 / 정운 스님
- 30 불자 참선 수행기
 윤희의 삶에서 벗어나리!(중) / 본정하 보살
- 32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추진 경과보고
- 34 대중알림판
- 35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 참가 신청서
- 36 후원현황
- 39 정기후원신청서



표지화 - 희상스님

• 발행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발행인 대표이사 의정스님 • 발행일 2017년 8월 1일(15호) • 전화 02)922-9967
• 전송 02)923-9967 • http://www.seonsujoa.org • E-mail seonsujoa@daum.net • 편집·제작 : 능인



대혜 보각 선사 『종문무고』 (44화~56화)

참학 비구 도겸 엮음
연관 스님 번역

이 책은 대혜스님의 제자인 도겸스님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대혜스님이 좌선하는 여가에 틈틈이 대중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모은 것이다. 흔히 “임제종 종풍을 알고자 하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할 정도로 118여 이야기 가운데 임제종종장의 접물이생 인연과, 오도의 정수와, 종횡무진한 기변을 보였다. 『종문무고』는 ‘종문의 무기 창고’쯤 되는 말인가? 혹은 ‘무고’는 박학 다식하며 다재다능한 사람을 칭송하는 말이기도 하다. ‘종문의 무기고’를 열어보기로 한다.

* 변소를 동사(東司)라 하는데 ‘제예명왕(除穢明王)이 동쪽에 있으며 사람과 불법을 수호한다.’ 하여 변소는 흔히 동쪽에 짓는다.

* 벽암록 40칙. 조주가 투자(投子大同)에게 “크게 죽은 사람이 도로 살아날 때 어떠합니까?” 하니, 투자가 “한밤중 ……….” 하였다.

【제45화】 남강(南康)의 여러 산주(山主)들이 서로 모인 적이 있었는데, 불인(佛印：雲居了元) 화상이 맨 나중에 도착하자 진정 화상이 물었다.

“운거께서 어떻게 이리 늦었습니까?”

“짚신을 신고 귀종의 뱃속을 지나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귀종에게 먹혔군요?”

“토하려 해도 그럴 수 없으니 어떡합니까?”

“토하지 못하겠거든 똥으로 싸버리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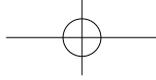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제44화】 전익(錢弋) 낭중(郎中)이 진정(眞淨) 화상을 뵈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던 중, 변소에 가고 싶어 하기에 정(淨)이 시자를 시켜 모시고 서쪽으로 가게 하니, 전이 뜬금없이 말하였다.

“동사(東司：변소)라고 했으면서 어찌하여 오려 서쪽으로 가게 하십니까?”

“흔히 동쪽에서 찾더군!”

스님[대혜]께서는 “아! 조주 화상이 투자(投子) 화상에게 물으니 ‘한 밤중에 다닐 것 없다. 날이 새면 도착 된다.’ 한 것도 이 말씀만은 못하다.”하였다.

【제46화】 진정 화상은 가끔, 뜬금없이 시자를 불러 “노화상을 모시고 오너라.” 한다. 이에 시자가 남(南：황용혜남) 선사 진영을 가지고 와 앞에 퍼놓으면, 정이 손을 이마에 얹고 “이 노화상이 아니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라면서 잠시 못마땅한 듯 얼굴을 찡그리고는 도로 소중히 거두게 하는데 번번이 이렇게 하곤 하였다.

잠암 청원(潛庵淸源 : 황용 남의 제자) 화상은 남 선사 진영을 뵈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곤 했다. “스님(대혜)께서는 새해 아침에는 반드시, 먼저 부처님과 원오 화상에게 공양 올린 후에 감히 음식을 먹으며 제자들에게 ‘부처님과 노화상이 아니었던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겠는가!’ 하였다.”

【제47화】 이화문(李和文) 도위(都尉)가 낭야 혜각 화상에게 《신심명》 주석을 청했더니, 낭야가 크게 한 구절 쓰고 아래에 조그맣게 한 구절 쓰니 화문이 보고 매우 탄복하였다.

【제48화】 순 노부(舜 老夫 : 曉舜)가 하루는 수 원통(秀 圓通 : 圓通法秀)에게 물었다.

“듣자니 자네가 회(天衣義懷) 화상을 친견했다던데 사실인가?”

“그렇습니다.”

“무슨 법문을 하시던가?”

“그의 투기송(投機頌)에

1, 2, 3, 4, 5, 6, 7이여

만길 봉우리 앞에 외다리로 서서

여룡(驪龍) 턱 밑 구슬을 뺏고

한 마디 말로 유마힐을 간파했네.

一 二 三 四 五 六 七

萬仞峰前獨足立

奪得驪龍頰下珠

一言勘破維摩詰

하였습니다.”

“별것 아니군. 달리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어느 날 어떤 장로가 와서 뵈니, 회가 불자를 들고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장로가 ‘모르겠습니다.’ 하니, 회가 ‘귀는 두 조각 가죽이요, 어금니는 한 벌 뼈다.’ 하였습니다.”

이에 순은 “진정한 선지식이다.” 라고 찬탄하고는 이로부터 마음에 새겨 잊지 않았다.

【제49화】 군주(筠州) 황벽 도천(黃檗道泉 : 眞淨 文의 제자) 선사는 처음에는 백법론(百法論)을 공부하여 강당에서 대단한 명성을 떨쳤으나 옷을 바꾸어 입고 남쪽으로 내려가 동산(洞山)에서 진정 화상을 뵈고는 오도송을 지었는데 그 대략은 이렇다.

한 망치로 무진장을 쳐 꿰뚫으니

모든 진기한 보물을 내가 모두 가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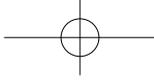
一鎚打透無盡藏

一切珍寶吾皆有

그의 기봉이 날카로워 아무도 감당하는 자가 없었다.

진정이 일찍이 “선사(先師 : 慧南)를 미처 뵈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하고 탄식한 적이 있는데, 도천이 나중에 자리에 올라 설법하다 자리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적멸을 보였다. 그리고 보니 진정의 말이 더욱 영험이 있었다.

【제50화】 삼불(三佛)이 오조(五祖)에 있을 때, 밤에 정자에서 늦도록 대화를 나누다 방장으로 돌아



오니, 등불은 이미 꺼져있었다.

오조가 어둠 속에서 “각기 한마디씩 일러보게.” 하니 불감은 “채봉(彩鳳)이 노을 진 하늘에서 춤 춥니다.” 하고, 불안은 “쇠 뱀(鐵蛇)이 옛 길에 누워있습니다.” 하였고, 불과는 “밭밑을 보십시오.” 하였다.

오조가 말하였다.

“우리 종문을 파멸할 자는 바로 극근(克勤 : 불과)이다.”

【제51화】 초당(草堂 : 草堂寺 善淸)이 회당(晦堂)을 모시고 서있으니, 회당이 ‘풍변화(風幡話)’를 들어 물었다. 당이 “아득하여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하니 회당이 말하였다.

“자네, 고양이와 쥐 잡는 것을 보았느냐? 두 눈을 부릅떠 깜짝이지 않고, 네 발은 땅에 버틴 채 꼼짝하지 않으며, 육근이 집중하여 대가리나 꼬리를 끊임없이 주시한다. 그런 후에 덮치기만 하면 잡히지 않는 놈이 없다. 참으로 마음에 다른 반연이 없고 뜻에 망상이 끊어져 육창(六窓 : 육근)이 고요하니 단정히 앉아 묵묵히 참구하면 만에 하나도 잘못이 없을 것이다.”

【제52화】 청소(淸素 : 세칭 淸素侍子) 수좌는 민(閩) 사람이다. 자명(慈明 : 石霜楚圓)을 13년 동안이나 의지하다가 나이 80이 되어서야 호상(湖湘) 녹원사(鹿苑寺)에 우거하였으나 애당초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지 않았으므로 아무도 그를 아는 자가 없었다.

마침 종열(從悅) 수좌가 처주(處州) 사람이어서 그와 이웃해서 살고 있었다. 열(悅)이 어느 날 꿀에 버무린 여지(荔枝)를 먹다가 마침 소(素)가 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불렀다.

“이건 노장님 고향 과실입니다. 같이 드시지요.”

“스승(先師)께서 돌아가신 후로 오랫동안 이를 먹어보지 못했소.”

“선사가 누구십니까?”

“자명선사요.”

열이 놀람기도 하고 긴가민가하기도 하여 남은 과실을 주며 차츰 친숙해졌다.

뒷날 소(素)가 물었다.

“자네는 어떤 스님들을 만나보았는가?”

“동산 문(洞山 文 : 克文) 화상을 친견하였습니다.”

“문(文)은 누구를 만났던가?”

“남(慧南 : 黃龍慧南) 화상을 친견하였다던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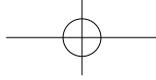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 ‘남 남작머리’ 는 스승을 뵈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법도(法道)가 이렇게 크게 떨치게 되었지.”

이에 열이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하루는 향을 사르어 들고 소에게 나아가 예를 드리니, 소가 “나는 박복하여 선사께서도 수기하시어 사람을 가르칠 것을 허락하지 않았소.” 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이렇게 달포여 지나니 열의 정성을 가상히 여겼던지 소가 “자네의 평생 지해(知解)를 나에게 말해 보시게.” 하였다. 열이 본 바를 자세히 말씀드리니, 소가 “부처의 경계에는 들어갈 수 있겠으나 마구니 경계에는 들어갈 수 없겠군!” 하였고 또 “말후일구(末後一句) 여야만 관문에 도달할 수 있네.” 하였다.

이렇게 반년 동안 지낸 후에야 소가 비로소 인가하고는 “문(文 : 克文)이 자네에게 보인 것은 모두 정지견(正知見)이네. 내가 비록 자네를 위해 점검하여 자네로 하여금 수용이 자재하게 하였으나 혹



시 자네가 스승을 떠난 것이 너무 빨라 그의 도를 다하지 못했을까 걱정되네. 뒷날 절대 나의 뒤를 잊지 말게.” 하고 경계하였다.

나중에 세상에 나와 진정(眞淨 : 克文)의 법을 이었다. 바로 도술 종열(兜率從悅), 이 분이다.

【제53화】 운거 오(雲居 悟 : 善悟. 佛眼 제자) 화상이 용문사(龍門寺)에 있을 때, 어떤 스님이 뱀에 물리자 불안(佛眼)이 “용문이라면서 어째서 뱀한테 물렸는가?”하고 물었다. 오(悟)는 “예상했던 대로 정말 대인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라고 즉시 응대하였다.

나중에 이 말이 소각사(昭覺寺)에 전해지자, 원오가 “용문사에 이런 스님이 있었다니! 동산(東山 : 五祖法演)의 법도가 적막하지 않겠구나.” 하였다.

【제54화】 초당(草堂)이 스님[대혜]과 임천(臨川)에서 만났을 때 일이다. 그때 한자창(韓子蒼 : 韓駒. 자가 子蒼. 어려서부터 文名을 떨쳤다.)이 스님을 사저로 초청하여 물었다.

“청(淸) 스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방(龐) 거사가 마조대사에게 ‘만법과 짝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것에 대해 청이 ‘고기와 용, 계와 새우가 어느 곳에 붙겠는가?’ 했다는군요. 만일 이와 같다면 역시 부질없이 이름만 얻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자창이 이 말을 초당에게 전하니, 당이 “공(公)은 그에게 말씀드리시오. ‘마치 한 사람은 배를 타고 가고, 한 사람은 육로로 가서 둘 다 모두 도착한 것과 같다.’라고요.” 하였다. 스님이 이 말을 듣고 “초당 스님 말씀이 맞다.” 하였다.

【제55화】 수보리는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空)을 가장 잘 이해한 분으로 태어날 때 집안이 온통 텅 비었다 한다. 부처님이 자리에 오르자마자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서 나와 “희유하십니까, 세존이시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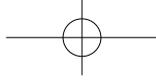
말해보라!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수보리가 이렇게 말했는가? 천친보살이 수많은 계승(천친보살이 지은 「금강반야론」)을 지었으나 다만 ‘희유’라고 한 두 자만을 찬탄하였고, 원오 선사는 “이 한 마디는 쇠몽둥이다.” 하였다. 그래서 육조께서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한다.’ 한 것을 듣고 곧 깨달으신 것이다.

【제56화】 원오와 불안과 불감이 함께 오조 화상 회상에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서로 “노화상께서는 그저 무미건조하기만 해서 가끔 마음을 설하고 성(性)을 설하시지도 않는다.” 하고는 ‘불신(佛身)은 무위(無爲)하여 제수(諸數)에 떨어지지 않는다.(『유마경』 말씀) 한 이치를 설해 주실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조(祖)가 “비유하자면 청정한 마니보주가 오색을 비추는 것과 같이 오색은 수(數)요 마니는 불신이다.” 하니, 원오가 두 늙은이에게 “저 얼렁뚱땅 설하는 것을 보시오. 우리들이 법을 설할 때는 얼마나 공을 들이는데 저 이는 그저 한두 마디 말로 때우려 하니 분명히 늙은 범에 지나지 않소.” 하였다.

조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설하고 성을 설하면 입만 더럽힌다.” 하고, 또 “고양이는 피를 빠는 공이 있고 범은 시체를 일으키는 덕이 있다. 이른바 농부의 소를 쫓아내고 배고픈 자의 음식을 뺏는 격이다. 그렇지 못하면 모두 흙덩이를 만지작거리는 놈이다.” 하였다. ☺



발가락이 옷을 입다

법념 스님(경주 흥륜사 한주)



여름이 오면 집안에서는 주로 맨발로 다닌다. 외출할 땐 어쩔 수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가지만 집에 돌아오면 신발도, 양말도 이내 벗어버린다. 무엇보다 발이 갑갑해 발가락들을 빨리 속박에서 풀려나게 해주고 싶어서다.

예전에는 코가 약간 들린 버선을 신었다. 버선신은 발 맴시가 예뻐 판소리 <춘향가>에서는 “오이씨 같은 버선발로 사뿐사뿐 걸어온다.” 고 표현했다. 그러나 오래 신으면 발가락이 아픈 게 흠이다. 어릴 때 엄마가 어디 다녀오면 버선부터 벗어 발을 쉬게 했다. 발이 조이니까 발가락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무지외반증(拇指外反症)으로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 쪽으로 기울어져 뼈가 튀어나온 이들에게는 버선 신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을 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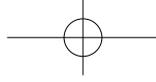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광목으로 만든 버선은 잘 해졌다. 떨어진 버선에 버선볼을 받아 베을을 일일이 맞춰 꿰매느라 고생케나 했던 시절도 있었다. 예쁘게 꿰매 신으면 진솔 못지않을 만큼 태가 났다. 이젠 잘 신지 않아

박물관에 들어갈 유물이 되어버릴 처지지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가정시간에 버선볼 받는 법을 배웠다. 학교에서 떨어진 버선과 광목조각을 선생님이 가져오란다고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그런 걸 학교에서 다 가르치나. 내가 하면 일등 하겠다.”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게 전부인 엄마라 신기했던 모양이었다. 중학교에서 배운다는 게 고작 버선 꿰매는 일이라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무리는 아니었을 테다.

발가락이 답답한 환경에서 풀려난 것은 근세에 들어서부터다. 양말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버선에 비해 발가락이 아주 편해 남녀노소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 중에 나일론양말은 일등공신이다. 밤늦도록 전등불 아래서 면양말을 꿰매던 노동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자들의 스타킹 양말은 늘씬한 각선미를 살려주었고 멋진 디자인양말은 발을 예



쁘게 포장해주었다. 말하자면 양말의 패션시대가 열린 셈이다.

일전에 어느 분이 발가락양말을 사왔다. 장갑은 다섯 손가락이 다 들어가도 손가락장갑이라고 하지 않건만 유독 양말만 발가락양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전부터 남들이 신은 것은 봐왔지만 신어보기는 처음이다.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으나 신어보니 의외로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발가락이 제각각 놀아 발모양이 이상한 듯 했지만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내려다보니 발가락들이 제각각 옷을 입고 서로 봐달라는 듯이 애교스런 표정을 짓는다. 그냥 신고 있으려다가 아무래도 갑갑한 것 같아 벗어서 개켜놓았다.

어찌 보면 발가락양말은 발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주는 발명품이랄 수 있다. 이것이 없었다면 발을 통풍시켜야 할 무좀이나 습진 등 피부병에 시달리는 이들이 많은 고통을 받을 것 같다. 발가락마다 방을 만들어 들어가게 하는 발상은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 아마 손가락장갑을 보고 본을 딴 게 아닌 가싶다. 발가락끼리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주니 비좁긴 해도 독립한 기분일 듯하다. 어릴 적엔 형제들끼리 한방을 쓰다가 커서는 각자 자기 방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을 성싶다.

무좀 때문에 발가락양말만 신는 스님이 이런 말을 했다.

“발가락 양말이야말로 내 발을 구제해준 구세주예요. 이젠 내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무좀이 있는 사람이 맨발로 다니면 다른 이들도 따라서 무좀에 걸린다고 질책을 한다. 그런 발을 가진 이들에겐 발가락양말이 정말 고마운 존재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다. 다른 양말과 달리 발가락이 따로 놀아 숨을 쉴 수 있어 시원하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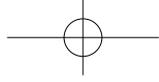
발가락이 들어가는 옷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예부터 다섯 발가락이 다 들어가는 버선

이 있는 것에 반해 일본에서는 엄지발가락만 들어가는 치카다비(地下足袋)라는 게 있다. 이것은 두 종류로 하얀 천으로 만든 얇은 것은 다회나 결혼식 등 정장을 하고 예의를 갖출 장소에 갈 때 신는다. 엄지발가락을 끼는 조우리(草履)를 신어야 해서다. 일할 때 신는 작업화는 모양은 같으나 색깔이 짙은 두꺼운 천으로 만들었으며 길이는 짧은 것에서부터 장화처럼 긴 것까지 있다. 밑바닥에는 고무창을 대어 신발 역할을 한다. 노동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걸 보면 작업기능성과 편리성을 고려해서 만든 신인 것 같다.

발은 몸뚱이의 맨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지 ‘발에 차인다’ 혹은 ‘발에 차였다’ 라는 말은 좋은 느낌을 주지 않는다. 물건이 너무 많아 가치가 없을 때, 혹은 상대방이 내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쓰인다. 특히 실연을 당한 사람에게는 아주 큰 상처를 주게 되는 말이다. 이처럼 발은 역물하게도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본의 아닌 말을 듣기도 한다.

어릴 땐 ‘발이 머리 위를 넘어 다니면 안 된다.’ 라는 잔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다.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시절의 말이긴 하나 요즘에도 먹혀드는 말이 아닌가싶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납득이 가서다. 아닌 게 아니라 누워있는 머리 위로 발이 지나다니면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지금은 마구잡이로 머리 위를 밟고 다녀도 그런 말을 해주는 어른들이 없어 정말로 아쉽다.

발이 귀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다. 중국이나 동남아를 여행하다 보면 자유선택으로 발마사지를 받을 기회가 더러 생긴다. 그럴 때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만져주는 마사지로 피로를 풀어준다. 아무튼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셈이다. 나무로 치면 발은 나무뿌리에 해당하므로 번어나간 뿌리 역할을 하는 발가락을 소중히 건사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거늘. 이제껏 발이 신체의 가장 밑에 붙어



●●● 일상 속 수행

있다는 이유만으로 천대를 했으니 몰라도 한참 모르는 짓거리를 한 성싶다. 발마사지로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준 것 같아 마음이 덜 미안스러웠다.

불교 경전에는 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금강경(金剛經)』에 ‘세족이부좌이좌(洗足已敷座而坐)’라는 구절이 첫 장에 나온다.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자리를 펴고 앉으신다는 뜻이다. 부처님이 사셨던 인도는 더운 곳이라 늘 맨발이어서 법을 설할 자리에 앉을 땐 발을 정갈하게 하고 앉아야했다. 뿐만 아니라 ‘정례불족(頂禮佛足)’이란 말도 자주 나온다. 부처님께 법을 청할 때 가장 공경하는 표시로 부처님 발에 정수리를 대고 예배를 올리는 의식이다. 몸뚱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발에다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정수리를 대고 예를 올린다는 의식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는 ‘하심(下心)’*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체의 제일 아래에 있지만 최상의 예우를 받는 귀한 발이다. 어찌 귀

하게 여기지 않겠는가.

발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았다. 발이 없다면 걸을 수도 땀 수도 없어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지 않은가. 그걸 여태 모르고 살았다니 한심스럽다. 이제야 철이 들었는지 새삼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부터라도 잘 섬겨야겠다고 다짐을 한다.

개켜놓았던 발가락 양말을 꺼내 방 안에서 신어본다. 발가락마다 치장을 하고 서로 모양새를 뽐내느라 야단들이다. 귀여운 생각이 들어 ‘다음에는 더 멋진 옷을 입혀줄게.’라고 속삭이자 발가락들이 춤을 추듯 꿈지락거린다. 옷을 입어 기분이 좋은지 밖으로 나가자고 보챈다.

저렇게 좋아하는 걸 여태껏 해주지 못하다니... 앞으로는 집에서도 발가락에 옷을 공손히 입혀야겠다. ☺

*하심(下心) : 불교용어로 가장 겸허한 마음씨를 말한다.

간화선 수행으로 일상의 행복한 삶 이룰 수 있습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수좌 복지기금 후원 문의처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 (02)922-9967

<http://www.seonsujoa.org>

e-mail : seonsujoa@daum.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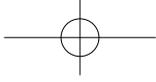
지정병원의 확보와 치료, 수좌 복지체계 확립의 지름길

제1호 지정병원 동보한방병원(치질, 치핵 치료 / 053-425-4085)

제2호 지정병원 코웰 USC치과의원(코웰사 임플란트 시술 / 02-2183-2879)

보다 자세한 문의는 법인 복지사무처로 해주세요. ☎ (02)922-9967





선불교의 이해

월암 스님(한산사 용성선원 선원장)

백담사 기본선원에서 2017년 3월 16일~22일까지 진행된 월암 스님의 특강 내용입니다. 사미, 사미니 스님을 위한 강의였습니다만 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간화선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게재합니다.

선종과 선의 종류

선종(禪宗)이란 인도의 선(禪)이 중국에 전래되어 선 수증(修證)의 종지를 가지고 형성된 종파를 말한다. 선종의 초조는 보리달마(菩提達摩)이며, 혜가, 승찬, 도신, 홍인을 거쳐 신수와 혜능에 의해 북종과 남종으로 나뉘어져서 북종은 점수선, 남종은 돈오선을 각각 선양하였다.

남종 계통인 마조의 홍주종(洪州宗)과 석두 계통의 석두종(石頭宗)에 이르러 조사선의 생활종교로 발전하여 선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발전되어 그 중 조동종과 임제종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선종에서는 자파(自派)의 종지로 “교외별전(敎外別傳), 불립문자(不立文字),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을 표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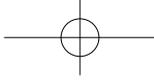
교외별전이란 선의 입각처(깨달음)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언어도단(言語道斷)], 마음의 길이 멀해버린[심행처멸(心行處滅)] 경지임을 나타내는 말임과 동시에, 언어와 문자에 의지하는 교종(敎

宗)의 가르침에 대해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을 강조하여 말보다 마음이 우월하다는 종파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른바 “불립문자”란 앞에서 말한 “언어문자를 초월한 선의 경지를 나타내기 위해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불립문자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不用文字)”는 의미가 아니고, “언어문자에 집착하지 않는다.(不着文字)”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선의 깨달음은 언어문자로 표현할 순 없지만, 또한 언어문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직지인심의 가르침은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부처의 성품을 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달마는 “성품이 곧 마음(卽性卽心)”이라고 말하고 마조는 “마음이 곧 부처(卽心卽佛)”이라고 말하고, 임제는 “사람이 곧 부처(卽人卽佛)”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견성성불이란 인간의 참성품을 보게 되면(깨달으면)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의미로 견성이 곧 성불(見性成佛)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성



품이란 연기중도(緣起中道)의 진여본성(眞如本性)을 말한다. 즉 진여본성을 깨닫는 것이 견성이며, 성불이라는 것이다.

교를 아난에, 선을 가섭에 배대하고 다문제일의 아난을 삼처전심(三處傳心)¹⁾의 수법자인 가섭의 뒤를 잇게 하는 법통설(法統說)을 제기한 선종의 주장은 교보다 선이 우월함을 강조하여, 언어문자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마음을 깨달아 생사해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 선불교는 대승불교의 실천적 계승이다. 대승불교는 근본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즉 부파불교가 부처님의 근본 중지를 오해하고 생사를 떠나 단멸공(斷滅空)에 안주하는 것으로 열반을 삼는다고 비판하며, 무주생사(無住生死 : 생사에 머물지 않음), 무주열반(無住涅槃 : 열반에도 머물지 않음)의 무주행(無住行), 즉 반야바라밀의 보살행을 근간으로 근본불교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창한다.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마저 버리는 대승보살행은 중국 선종에서 견성성불(見性成佛), 요익중생(饒益衆生)의 역동적 실천사상으로 계승되어진다. 그러므로 “견성성불 요익중생”이 선종의 중지(宗旨)가 되는 것이다.

선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대지도론』 17권에서 외도선(外道禪), 성문선(聲聞禪), 보살선(菩薩禪)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능가경』에서는 사종선(四種禪)을 설하고 있다. 첫째, 우부소행선(愚夫所行禪)은 성문·연각·외도 수행자의 선정으로서 자기의 이 몸은 무상(無常)·고(苦)·무아(無我)·부정(不淨)한 것이라고 관하고 인무아(人無我)라는 입장에서 설해진 선을 말한다.

둘째, 관찰의선(觀察義禪)으로 의(義 : 意味)를 관찰하는 대승공관(大乘空觀)의 선정을 들고 있다. 여기의 “의”란 법(法 : 사물, 존재)라는 의미로서, 자기의 몸(人)과 일체의 객관 존재(法)가 공

(空)·무아(無我)라고 관하여 인법이무아(人法二無我)를 깨닫는 선을 말한다.

셋째, 반연여선(攀緣如禪)은 진여(眞如)를 소연(所緣)으로 하는 선이다. 일체의 존재가 공하다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여래의 범신인 진여불성(眞如佛性)은 상(常)·락(樂)·아(我)·정(淨)임을 관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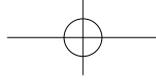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넷째, 여래청정선(如來淸淨禪)은 일체의 삼매를 총괄하는 선정으로, 여래의 깨달음의 경지인 자각성지(自覺聖智)에서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자비행화에 대해 전념하는 선을 말한다.

종밀은 「도서」에서 종래의 여러 선정설을 종합하여 외도선(外道禪)·범부선(凡夫禪)·소승선(小乘禪)·대승선(大乘禪)·최상승선(最上乘禪 : 여래청정선)의 오미선(五味禪)으로 분류하고 있다. 훗날 선종에서는 여래선(如來禪)과 조사선(祖師禪)으로 나누어 여래선에 대한 조사선의 우위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여래선을 중국적 조사불교의 관점에서 조사선이라 부르는 것이다.

굳이 여래선과 조사선의 차이를 든다면 여래선은 인도선의 연장선에서 습선(習禪)의 자취가 남아있어 선정에 치중하고 있으며, 조사선은 중국선으로서 수연방편(隨緣方便)으로 응기접인(應機接引)하며, 생활선으로 지혜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선은 혜능으로부터 태동하여 마조의 홍주종과 석두의 석두종에 이르러 꽃을 피우고, 이후 오가칠종(五家七宗)으로 발전하게 된다.

달마의 능가종(楞伽宗)

중국에 선이 전래된 것은 후한(後漢) 이래 선경(禪經)이 번역된 이후의 일이다. 안세고가 소승계의 선정인 『안반수의경』 및 『선행법상경』 등을 번역하였으며, 지루가삼이 대승계의 선정인



『반주삼매경』과 『도행반야경』 등을 번역하였다. 특히 수식관(數息觀)을 주로 설하고 있는 『안반수의경』은 달마가 중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중국 선종이 흥기되기 이전에 초기 중국의 습선자(習禪者)들에게 끼친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 시기의 선을 습선(習禪)이라 말하고 또한 습선시기(習禪時期)라고 말한다.

중국 불교의 습선시기에 주로 유행했던 선수행법은 주로 인도 부파불교로부터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크게 유행해 오던 오정심관(五停心觀)²⁾으로 대표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오정심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다.

습선시기를 거치면서 먼저 천태선종이 개립되고 이어서 달마선종이 개종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이와 같이 중국 선종은 초기에 천태선과 달마선으로 출발하였으나 뒷날 달마계통의 선종으로 융합되었다.

선종은 보리달마를 동토의 초조로 추존하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如何是祖師西來意)?”라는 공안을 창안하여 선문답자들에게 참구케 하였다. 달마와 양무제와의 문답 또한 『벽암록』 가운데 제일칙의 송고(頌古)로 편성되어 선문대중이 주지하는 공안이 되었다.

달마선은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여 선사상을 전개하고 있다. 『능가경』의 이른바 “불어심위종(佛語心爲宗)³⁾ 및 “제불심제일(諸佛心第一)” 등의 구절을 그 사상적 근간으로 삼았기 때문에 능가종(楞伽宗) 혹은 불심종(佛心宗)이라고 부르고, 그에 속한 수행자들을 능가사(楞伽師)라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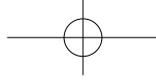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달마의 『이입사행론』에 의거하면 능가선의 대승안심선법(大乘安心禪法)의 구체적 수행방법으로 “이입사행(二入四行)”을 제시하고 있는데, 즉 도에 들어감에는 두 종류의 문[二入]이 있는데, 하나는 이치로 들어가는 “이입(理入)”이며 다른 하나는 실천행으로 들어가는 “행입(行入)”이 있다

고 설한다. 이입(理入)이란 “경전의 가르침에 의거하여 종(宗 : 心, 禪)을 깨달아[자교오종(藉教悟宗)]”, 궁극에는 범부와 성인이 동일한 참성품(眞性), 즉 불성을 깨달음을 말한다. 먼저 이치로 들어가는 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입(理入)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인 교에 의거하여 종(宗 : 宗旨, 禪, 마음)을 깨닫는 것[자교오종(藉教悟宗)]이다. 중생은 부처님과 동일한 참성품(同一眞性)을 가지고 있으나, 다만 객진망념의 장애에 가려있음을 깊이 믿는 것이다. 만약 망념을 여의고 진성으로 돌아가기(捨妄歸眞)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하여 벽관(凝住壁觀)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자타의 구별이 없고 범부와 성인의 동일함을 굳게 믿어 변함이 없으며, 또한 언어 문자의 개념적 가르침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때에 진리와 하나 되어 고요한 무위(寂然無爲)에 이른다. 이를 이름하여 이입이라 한다.⁴⁾

위의 가르침에 의하면 달마선의 선교관(禪教觀)은 “자교오종(藉教悟宗)”이라 할 수 있다. 즉 달마는 불교의 근본 종지인 선(禪)을 깨닫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말씀인 교(教)에 의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중생본래성불(衆生本來成佛)의 입장에서 중생의 참성품은 성인의 그것과 동일하지만 객진망념(客眞妄念)에 뒤덮여 있으므로 망념을 제거하고 진성을 들어내기(捨妄歸眞) 위해서는 마음을 모아 벽관을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달마는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外息諸緣), 안으로 마음에 험떡거림이 없어(內心無喘),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心如牆壁), 도에 들어갈 수 있다(可以入道).” 라고 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벽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범부와 성인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



는 참성품(眞性)을 깨닫는 것이다. 본질적인 면에서 볼 때 중생과 부처는 동일진성(同一眞性)이다. 그러나 범부는 불행하게도 그 진성을 지키지 못하고 객진망념에 가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본성(心性)은 본래 깨끗하지만(心性本淨), 객진번뇌에 오염되어 있다(所染客塵).”는 것이다. 이 객진번뇌에 가려져 있는 참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달마선 수증론의 출발이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범부와 성인이 동일하게 본래 갖추고 있는 그 참성품(眞性)을 밝혀냄에 있어서 이미 부처와 똑같이 깨달아 있는 불성(佛性)의 본래성의 입장을 강조할 것인가, 아니면 객진번뇌에 덮여 오염된 중생심(衆生心)의 현재성을 강조할 것인가에 따라 수증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달마는 위에서 ‘깊이 믿어라(深信).’ 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야말로 선사상사에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는 제일의 수증전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선종에서의 믿음은 중생이 곧 부처요, 이 마음이 부처임을 믿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 믿음이 진성(眞性)인 본래성을 더 강조하느냐, 아니면 중생심(衆生心)인 현재성을 더 강조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본래성을 인정하면서 현재성의 입장에서 있느냐에 따라 수증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불교사상사에서 볼 때 부파불교시대에 이미 “심성본정(心性本淨)” 설과 “심성부정(心性不淨)” 설이 대립된 적이 있다. 심성본정설을 주장한 대중부 등에서는 심성은 본래 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성에 회귀하면 된다는 주장을 했으며, 심성부정설을 주장한 설일체유부 등에서는 심성은 본래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닦아서 청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상이한 주장을 하게 된다.⁵⁾

이후 이 두 사상은 대승불교와 중국 초기불교에서 “불성본유(佛性本有)” 설과 “불성시유(佛性始有)” 설로 발전하게 된다. 불성본유란 중생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며, 불성시유는 중생의 마음에는 불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행을 통해 불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두 사상은 이후 중국불교의 돈오설과 점수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승기신론』에서는 본각(本覺)과 불각(不覺) 그리고 시각(始覺)을 설하고 있다. 부처와 중생이 본래 깨달아 있는 본래성에서 본각(本覺)을 설하고, 현재 중생은 본각을 여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 상태를 불각(不覺)이라고 말하고, 장차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깨달음을 회복함으로 시각(始覺)이라 한다. ⊕ (계속)

1)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 곳에서 가섭에게 법을 전했다고 함. 첫째, 대중 가운데에서 연꽃을 들어 보임에 가섭 혼자만이 빙그레 웃음[연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微笑)], 둘째 다자탑전에서 자리의 반을 나누어 함께 앉음[다자탑전(多子塔前)의 반분좌(半分坐)], 셋째 열반하셨을 때 가섭이 늦게 도착하니 곁 속에서 두 발을 들어 보이심[곽시쌍부(廓示雙趺)].

2) 오정심관(五停心觀)이란 오종관법(五種觀法)으로 다섯 가지 번뇌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수행법을 말한다. 오정심관에서 관은 지관(止觀)의 지혜[살핌]을 의미하는 관(觀) 즉 위빠사나(vipassāna)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어렵고 산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멈추게 한다는 기능적 의미에서 사마타(sa' matha, 止) 명상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다. ‘오정심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인도불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정영사(淨影寺) 혜일(慧遠)의 『大乘義章』을 위시로 하여, 천태지의(智顓, 538-597)의 『마하지관』 등의 저술, 화엄종 지엄(智嚴)의 『화엄경공목장』 등의 중국 문헌에서 사용되고 있다.

3)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으로 종(宗)을 삼는다.

4) 『楞伽師資記』. “理入者, 謂藉教五宗. 深信凡聖舍生同一眞性, 但爲客塵妄覆, 不能顯了. 若也捨妄歸眞, 凝住壁觀: 無自他, 凡聖同一, 堅住不移, 更不隨於言教. 此卽與眞理冥符, 無有分別, 寂然無爲, 明之理入.”

5) 부파불교시대에 상좌부와 대중부로 나뉘어 주장하는 교의가 서로 달랐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대중부에서는 심성본정(心性本淨)설을 제기하였다. 즉 대중부는 중생의 심성은 본래 청정하다. 다만 무시이래로 객진번뇌에 의해 오염됐을 뿐이다. 따라서 수행자는 번뇌를 소멸해 본래 청정심과 상응한 심성본정의 상태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심성부정설은 정반대로 심성은 본래 청정하지 않기(不淨)수행을 통하여 청정심을 얻는 것이라고 말한다. 즉 오염심은 중생이 본래 갖고 있는 마음이며, 청정심은 수행 후 얻는 부처의 마음을 말한다. 따라서 부처의 마음으로 오염심을 멸하고 난 후 청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명상센터 답사기 3

정리 : 박희승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장)
홍광표 (동국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본회는 선을 세계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종립 특별수도도량 봉암사와 함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세계의 명상 흐름을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명상센터 건립 운영에 참고하고자 지난 2016년 1~4월 중 유럽, 미국, 일본의 여러 국제선센터들을 답사하였다.

아바야기리 수도원(Abhayagiri Monastery)

태국 상좌부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자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아잔 차' 스님의 제자들이 1995년 설립한 수행공동체이다. 수도원 홈페이지에 보면 지역 사회를 위한 거주 장소로써, 정기적으로 수도원을 방문하는 수행자들을 위한 성전으로써, 세계의 영적 존재로써 수도원이 의미를 가지도록 오롯한 수행이 늘 이뤄지도록 할 것이며 그 수행의 열매는 서로 나눌 것이라고 수도원 설립 목적이 적혀 있다.



〈새로 지은 스님들의 거처를 둘러보는 참관단〉

미국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밸리에 위치해 있으며 상좌부 불교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2,500년 전 부처님이 그리 하셨듯이 수행자들은 숲에 머물면서 자비와 덕, 마음 수행, 지혜를 수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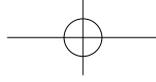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공양을 올리는 지역주민들〉

함으로써 정각의 길로 들어가자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욕과 절약의 삶을 사는 것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의 실천이라 여긴다. 때문에 아바야기리 수도원의 수좌들은 탁발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현재 20여 명의 수좌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부처님이 확립한 율장에 따라, 승복 한 번, 발우 한 벌, 일일일식, 비상약, 숲속 오두막에서의 명상과 휴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신도 또는 재가 수행자들은 매일, 매주 정해진 시간에 스님들과 함께 수행할 수 있으며 스님들에게 상담을 청할 수도 있다.

스피릿 락 명상센터(Spirit Rock Meditation Center)

미국 명상계의 1세대 선두 주자인 임상심리학 박사, 잭 콘필드가 세웠다 해서 더 유명한 스피릿 락



●●● 수행의 현장 ⑤



〈스피릿 락 명상센터 하부명상홀 전경〉

명상센터 역시 캘리포니아에 위치해 있다. 위빠사나 혹은 마인드풀니스, 자비관 같은 명상 프로그램이 주로 행해진다. 건강을 위해 위빠사나와 요가를 병행하기도 하고 특강으로 법문만 들려주기도 하며 수행 기간도 반 나절부터 한달까지, 개인부터 가족까지 다양하게 수행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스피릿 락 명상센터의 설립 목적은 모든 이들에게 부처님의 깨달음을 체득시키는 것이라 한다. 때문에 돈이 없어서 수행이나 법문을 듣는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없는 이가 없도록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한다. 가령 근로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비를 대체해 주는 가 하면 기숙 수행자들, 환자들을 위한 장학금도 지급된다.

IMS 치유센터 (IMS Retreat Center)



〈수행센터 메일빌딩 내 명상센터의 수많은 좌복들〉

메사추세츠 주 한적한 숲속에 위치한 IMS 치유센터는 아주 오래되고 신뢰도가 높은 서양의 명상 수행처 중 한 곳이다. 자비명상법을 통해 정신과 마음의 자유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 피난처

를 제공코자 설립했다고 한다.

수행시설은 무려 49만 평 부지에 초심자들을 위한 수행센터와 숙련된 수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숲속 명상원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수행센터에서는 주말을 이용한 이틀간의 단기 수행부터 3개월 수행까지 다양한 일정의 묵언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숲속 명상원에서는 독립적이고, 덜 형식적인 수행 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25명의 스님을 포함한 정규 사범과 42명의 객원 사범들이 수행자들을 지도한다.

강설, 좌선, 행선, 묵언, 울력 등 다양한 수행 방식이 행해지는데 가장 비중을 크게 두고 있는 것은 행선이라 한다. 때문에 건물들마다 행선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특히 숲속 명상원의 경우는 건물들을 회랑으로 연결, 건물 내외부 어디에서나 행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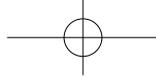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참관단은 IMS 공동 창립자인 조셉 골드스타인과 좌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원다르마 센터 (Won Dharma Center)



〈일원홀에서의 명상〉

뉴욕의 북쪽 클래버랙 타운 넓은 초지에 원다르마 센터가 자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예전부터 원주민들이 신성시하던 곳이라 하는데 그래서인지 탁났한 스님의 마인드풀니스센터 등 국제적인 명상센터들이 주변에 많이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생 종교인 원불교의 최초 해외 총부인 원다르마센터는 지난 2011년 10월 개원했다. 당시 개원 봉불식에서 경산 종법사는 “물질문명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정신개벽을 이루어 평화세계를 이루는데 원불교가 앞장서겠다.” “속세를 떠나 조용한 곳에서 은둔해 명상하고 수도하는 것이나 일 없을 때 하는 과거 선(禪)의 방식을 답습하려면 원불교나 원다르마센터가 태어날 필요 없다.” “원다르마센터에서 훈련을 통해 물질과 환경의 노예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삶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며 원다르마센터의 개원 취지를 밝혔다.

현재 원다르마센터에는 10여 명의 교역자가 근무하며 일요법회, 수요선방, 목, 금요일 요가교실, 교리공부 등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 매월 또는 격월로 선, 명상, 회화, 실용적인 법 문답을 통한 교리 교육 등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원다르마센터의 수행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현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당연히 영어로 진행된다. 최근 미국에도 선과 명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명상하는 인구와 명상센터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여 이 곳에서는 좌선과 동선, 와선, 행선, 요가, 회화 등을 원불교만의 독특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다른 명상센터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다.

지난 6월 28일,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에서 최종 당선자가 된 토마스 한라한 교수는 이 곳, 원다르마센터를 설계한 당사자이다. 한라한 교수는 ‘사치, 기교를 배제하고 간결하고 단순한 디자인’을 설계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빛을 선건축의 주요한 설계언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축가이다. 원다르마센터도 단순화와 친환경적 설계가 돋보였는데 우리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어떤 모습으로 설계될지 자못 궁금하다.

블루 크리프 수도원 (Blue Cliff Monastery)



〈블루 크리프 수도원 내 명상 정원〉

2007년 5월, 베트남 틱낫한 스님이 명상수행센터이자 비구, 비구니, 불자들이 함께 하는 수행공동체로 창립했다. 본원인 프랑스의 플렘빌리지와 같이 틱낫한 스님 직계제자들이 운영, 수행 지도를 하고 있다.

뉴욕 북서쪽 캣스킬 지역 서쪽에 자리한 이 수도원에서는 좌식 명상, 걸기 명상, 식사 명상, 휴식 명상, 차 명상 등을 통해 우리 내부 그리고 주변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경이로움을 즐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삶 안에서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수행한다.

현재 블루 크리프 수도원에는 30여 명이나 되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그리고 재가수행자들이 수행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20대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지도로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일반 법회가 열리고 이때 법문도 듣고, 명상도 하며 법문답도 병행 실시한다.



이 곳에서는 15분 간격으로 종이 울렸다. 명상의 종이다. 이 종소리를 듣고 수행자들은 각자 하던 일을 멈추고 지금이라는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이다. 마음챙기기 수행 (mindfulness practice) 이 바로 이것이다. ☺



도랑 먹은 가히

오 윤 희(언해불전연구소장)

훈민정음 창제를 계기로 그동안 한문으로 기록되어 온 많은 책들이 우리 글, 우리 말로 번역되었다. 그 중 불교 경전을 번역한 것을 불전언해, 언해불전이라 한다. 왕실과 간경도감 등 중앙관서에서 간행을 주도해 그 언어가 중앙의 상층부 언어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옛 스님들은 우리 말, 우리 글로 불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설하셨는지 살펴본다.

환화공신즉법신(幻化空身卽法身)
약요법신무내외(若了法身無內外)인댄
개구니저각공지(疥狗泥猪却共知)나
삼세여래증불회(三世如來曾不會)로다.

곡도 같이 된 빈 몸이 곧 법신이니
하다가 법신을 알면 안팎이 없으리.
도랑 먹은 가히와 흙 문은 돌은 도리어 다 알거늘
삼세 여래는 곧 알지 못하시니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교육부의 고위 공무원이 했다는 말씀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 노래가 생각났다. ‘그냥 동네 아줌마들이에요.’ 며칠 전에는 국회의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 때도 저 노래가 생각났다. 개돼지 흡수자가 있다면, 파워엘리트나 슈퍼엘리트도 있다. 엘리트는 정말로 사람들을 개돼지로 여긴다. 저 공무원이 주장하듯, 우리나라는 신분제 나라이다. 평등할 수 없는 땅이다.

‘환화(幻化)’를 ‘곡도 같이 된’이라고 새겼다. 곡도로 지었기 때문에 텅 비었다. 법(法)으로 지은 몸, 법신(法身)을 마주 세운다. ‘하다가’는 ‘만약’의 옛말이다. ‘도랑이’는 옴벌레이다. 옴벌레가 몸에 기생하면 주위의 살이 문드러진다. 진물

과 고름이 흘러 떡이 된다. 땀구멍이 부족한 돼지는 진흙에 뒹굴러야 몸을 식힐 수 있다. 가장 더럽고 징그러운 꼬라지, 저 노래 아래에는 ‘사오나운 양자’라고 친절한 설명을 달았다. 꼴사나운 개돼지를 삼세여래에 마주 세운다. 무슨 엘리트 정도가 아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다. ‘개돼지도 도리어 다 아는데, 삼세여래는 곧 알지 못한다.’고 노래한다. 그냥 비유나 빈 말이 아니다. 역설 같지만 역설도 아니다.

“옛날 세종 장헌대왕께서 일찍부터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 가운데 「야보송(冶父頌)」과 「종경제강(宗鏡提綱)」, 「득통설의(得通說誼)」, 그리고 「증도가남명계송(證道歌南明繼頌)」을 국어(國語)로 번역하여 「석보(釋譜)」에 넣고자 하였다. 문종 대왕과 세조 대왕에게 명하여 함께 짓도록 하고, 친히 교정하고 결정을 했다. 당시 <야보송>과 「종경제」의 두 가지 해석과 「득통설의」는 이미 초고가 완성되었지만 교정을 할 겨를이 없었고, 남명의 「계송」은 겨우 30여 수를 번역하여 모두 일머리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유언으로 명을 남기시니 문종과 세조가 받들었다. 남기신 가르침을 받들어 먼저 「석보」를 판에 새겨 유통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이나 「월인석보」는 세종의 작품이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야기, 이런 건 누구나 다 안다. 위의 글은 「금강경삼가해」, 「남명집언해」라는 책에 달린 발문의 한 부분이다. 한계희(韓繼禧 : 1423-1482)가 지었다. 그는 세종 말년 집현전에 들어가 세종의 총애를 받으며, 세자를 가르치기도 했다. 이 두 책은 세종과 문종과 세조, 세 대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번역했다. 먼저 두 아들이 새기면, 세종이 한 구절 한 구절 따져 본 뒤에 손수 결정을 했다. 아마도 한계희는 바로 옆에서 그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새기고 푸는 일, 끼어들어 거들기도 했을 것이다. 그만큼 생생한 기록이다. 개돼지의 노래, 만년의 세종이 두 아들과 함께 읽고 함께 토론하며, 국어로 번역한 노래이다. 한계희는 세종의 뜻을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 불성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라고 요약했다.

이런 임금, 아니 이런 아버지가 어디 다시 있을까? 난 이 장면을 생각하면 늘 부끄럽다. 내게도 딸이 하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왜 내 딸과 이런 글을 함께 읽지 못했을까? 성군 세종이라지만, 우리는 아직도 세종을 잘 모른다. 저 공무원이나 저 국회의원, 개돼지는 몰라도 세종이야 존경한다고 하겠지. 저 노래는 세종의 노래이다. 저 노래를 진작 알았다면 그냥 개돼지, 그냥 아줌마, 이런 허튼 소리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 전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 논란이 있었다. 「증도가」를 찍었던 활자에 대한 논란이다.

‘증도가자’, 이 소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들, 그들은 대개 ‘증도’와 ‘가자’를 떼어서 읽었다. 적힌 대로 읽어야 하는 아나운서, 그들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다. 세종이 저 노래를 얼마나 좋아했고, 두 아들과 함께 얼마나 꼼꼼히 읽었는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이른바 『직

지심경』도 비슷하다. 이 책들은 모두가 ‘선(禪)의 책’이다. 나는 이런 게 우리 선(禪)의 현실이라고 믿는다. 이런 책이 뭔지, 소수의 전문가를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그저 금속활자 이야기만 한다. ‘세계 최초’만 노래 부른다. 그러는 사이 개돼지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세종께 여쭙 본다면 뭐라 하실까?

환화공신즉법신(幻化空身卽法身)

곡도 같이 된 빈 몸이 곧 법신이니

이 구절은 「증도가」의 구절이다. 당나라 영가 현각(永嘉玄覺 : 665~713)이 지었다. 그 아래의 세 구절은 「남명계송」의 구절이다. 송나라 남명 법천(南明法泉)이 지었다. 영가의 노래는 320구절이다. 한 구절 아래에 세 구절, 또는 네 구절을 덧대어, 이어 붙렸다. 그래서 계송(繼頌)이라고 부른다. 노래 치고는 엄청 긴 노래이다.

고려대장경에는 「남명천화상송증도가사실(南明泉和尚頌證道歌事實)」이라는 긴 제목의 책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한글대장경에 번역도 되어 있다. 이 책은 정말 재미있다. 아시아 대륙의 온갖 고전, 희한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이 책은 말하자면 참고서이다. 「증도가 남명계송」을 읽기 위한 참고서. 고려 사람들은 이런 참고서도 만들어 대장경 안에 넣어 두었다. 고려 사람들에게 이 노래는 정말 인기가 높았다. 이런 노래 정도는 개돼지라도 꼭 알아야 할 노래라고 믿었다. 세종도 그랬고, 두 아들도 그랬다.

환신(幻身)이 곧 법신(法身)이기에 밖이 없고, 법신(法身)이 곧 환신(幻身)이기에 안이 없다. 옛말에 이르기를 “지(智)가 진경(眞境)에 어울어 법이다 몸이 되기에 이르기를 법신(法身)이라 한다” 고



했다.

‘가히와 돌이 다 알다’ 함은 이른바 파파설설(跛跛挈挈)하여 제 능히 지키는 까닭이오,

‘여래는 알지 못한다’ 함은 도도달달(初初怛怛)하여 집의 더러움을 펴시는 까닭이다.

여기에 안팎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파파(跛跛)는 ‘질뚝거리다’는 뜻이고 설설(挈挈)은 ‘잡아 들다’는 뜻이니 사오나운 양자이다. 도도달달(初初怛怛)은 ‘시름하여 슬퍼하다’는 뜻이다.

저 노래 아래에 달려 있는 설명, 풀이이다.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저 맛이라도 보면 좋겠다 싶어 말만 좀 바꾸어 소개하기로 했다. 320 구절마다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다. ‘노파의 마음’이란 말도 있지만, 언해불전의 친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다.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는 초등학교도 알만한 한자 하나에도 우리말 설명을 달아준다. 낯설고 어려운 이야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쉽게 해 줄까 애를 쓴다. 너도 알 수 있어, 말 그대로 도도달달, 노바심절이다. 사나운 개돼지, 코흘리개 어린애라도 우리말로 읽게 해 주려고 안절부절, 그런 것이 삼세여래의 모습이란다. 그런 것이 ‘곡도의 몸’과 ‘법’의 몸’에 안과 밖이 없는 까닭이란다.

병들고 더러운 개돼지도 절룩거리며 허겁지겁하면서도 저 하나는 지킨다. 개돼지도 안다는 데 사람이 모를까? 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어떨까? 그들도 삼세여래처럼 ‘집안의 더러움’을 염려하는 것일까? 그들이 염려하는 그들의 집안은 개돼지도 함께 사는 우리의 집안, 우리의 나라일까? 세종도 두 아들과 함께 이런 저런 물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걸 함께 토론했을 것이다. 그 무렵 세종의 집안도 어려웠다. 두 아들을 먼저 보냈고, 아내도 병을 치르다 죽었다. 세종과 그의 아들,

그들의 집안은 어디까지일까?

아무튼 이 노래에도 계보가 있다. ‘남명계승’의 개돼지는 당나라 남전 보원(南泉普願 : 748-835)의 노래를 변주한 것이다. 여기엔 이노(狸奴)와 백고(白牯)가 주인공이다. 이노는 고양이이고, 백고는 흰 소이다. 「증도가사실」에서는 대혜(大慧 : 1089-1163)의 노래를 들어 풀이한다. 이에 비해 「남명집언해」는 천동 광지(天童宏智 : 1091-1157)의 노래를 따른다. 절룩절룩 허겁지겁, 천동 광지의 노래이다. 기중에 제일 쉽다. 개돼지나 고양이 소, 모두 꼴사나운 짐승들이다. 그들도 다 안다. 오랜 세월 이어 오던 선(禪)의 노래가 이랬다.

수능향외과정진(誰能向外誇精進)이리오

뉘라서 밖을 향해 정진 카냥하리오

취사(取捨)하는 마음 나면, 사람을 더럽히리

도원(桃源)의 골짜기, 꽃 피는 자리

동풍 기다리지 않아도, 제 봄이 있나니

악(惡)을 버리고 선(善) 얻으며, 망(妄) 버리고 진(眞)에 가는 것이 다 밖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다. 경에 이르되, “하다가 정진하는 마음 일으키면, 이것이 망(妄)이라, 정진이 아니다. 오직 이 마음이 거치지 않을 수 있다면 정진이 가이 없으리라” 고 했다. 3-4구는 정진의 힘 빌지 않아도 벌써 꽃 피고 열매 열 것이니, 본분(本分)을 이룬 것이다.

과(誇, 자랑할 과)라는 글자를 ‘카냥하다’라고 새겼다. 망(妄, 허망할 망)은 ‘거칠다’라고 새겼다. ‘잘카냥’이란 말도 있다. 겉으로 잘난 체 떠드는 모습이다. 이에 비해 ‘카냥’은 좀 점잖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은근 나와 남을 차별한다. 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은 잘카냥을 떨었다.

그렇게 사람들을 더럽혔다. 하지만 잘카냥 떠는 이들, 더럽다 할 것도 없다. 더 더러운 건 '카냥 떠는' 이들이다.

호피양질지다소(虎皮羊質知多少)오
범의 갓과 양의 얼굴, 모르리로다 얼마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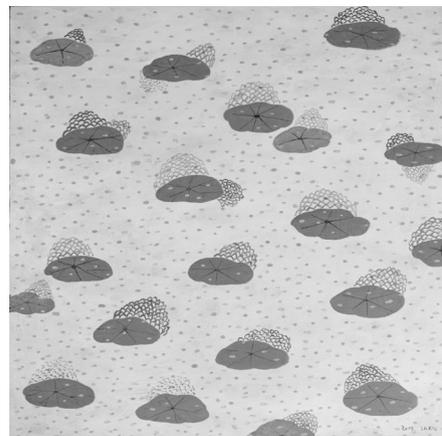
이런 구절도 있다. 언해불전은 사람이나 짐승의 몸을 '갓나뎃' 이라고 부른다.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이다. 호랑이 대가리에 양의 얼굴, 대가리는 껍데기, 주머니이다. 얼굴은 그 안에 담긴 본질이다. 이런 게 '범카냥' 이다. 겉으로는 두렵고 씩씩해 보여도, 속으로는 별별 떠다. 그런 걸 값으로 치면 얼마나 할까? 「남명집언해」는 이런 노래이다.

「남명집언해」는 세종의 노래이다. 개돼지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어린 백성, 어린 아이들이 함께 불러야 할 노래이다. 지들이 뭘? 엘리트는 대개 코웃음을 친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 이른바 전문가들, 나름 다 안다. 하지만 개돼지들은 아직도 모른다. 세종의 마음은커녕, 이런 책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서 아직도 절룩거리며 근근 자기를 지키다. 이 책은 전문가를 위한 책이 아니다. 개돼지를 위한 책이다. 오백 년 전 임금님들이 애써 만든 책, 이걸 정말 이상하다.

몇 년 전 언해불전 모두를 좀 더 쉽게 풀어, 두루 보급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적지 않은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걸 위해 꼬박 삼사 년, 절룩절룩, 허겁지겁, 노가다 질을 했다. 계획대로였다면 「남명집언해」, 이 책도 벌써 나왔어야 했다. 전문가의 '카냥', 나는 지금도 이런 게 너무 무섭다. 일을 새로 만들지도 않지만 쉽게 망가뜨릴 줄은 안다. 누구 탓을 하자는 게 아니다. 보통은 뭘 망쳤는지도 모른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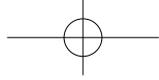
부드럽게 안아 주어라

희상 스님



고통과 싸우지 마라.
짜증이나 질투심과도 싸우지 마라.
갓난 아기를 안아 주듯이
그것들을 아주 부드럽게 안아 주어라.
네의 화는 네 자신이다.
그것을 향해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된다.
네 안에 있는 다른 감정들에게도 마찬가지다.”

- 틱낫한 스님의 「너는 이미 기적이다」 중에서 -



바리때 하나의 노래, 『일발가(一鉢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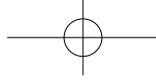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여현 스님(동국대 강사)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난감한 일이다. 인생에 모범정답이란 없다. 각자의 삶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의식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삶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범부이다. 태어나고 죽는 것을 명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삶에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날이 허다하다. 잠에서 눈 뜨고 일어나면 어제처럼 오늘도 산다. 그냥 몸에 밴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다. 그러면서 업습도 저절로 익어 간다. 가끔은 불규칙적으로 삶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다. 이런 날은 낮설고 바쁜 날이 될 수도 있다. 아님 완전히 잊혀진 일이 생각나거나 행동으로 옮겨 가는 날도 있다.

수행도 삶과 비슷하게 움직인다. 습관적으로 하거나 불규칙적으로 하거나, 아님 관심조차 없는 경

우가 있다. 이처럼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하는 수행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각자 취향에 따라, 의지에 따라 수행을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행을 찾아 무게를 내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중생이다. 그러다가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올 때는 사무치도록 고뇌를 하기도 한다. 그 때는 부처님처럼 자신도 도를 깨치고 싶은 욕망이 강하게 일어난다. 모든 일을 멈추고 수행을 해 도를 깨치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삶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며, 자기 자신을 감당해 낼 수가 없다. 자신만이 당하는 일로 느껴져서 삶의 희망을 놓고 싶다. 도를 깨쳐야만 감내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휩싸일 때가 일생에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처럼 불교 수행자라면 한 번은 전력을 다해 자신만의 수행에 온 힘을 다해 매진한 적이 있으리라. 그러나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뿌연게 먼지가 올라오듯이 중생심이 일어나면, 수행은 지겨움으로 다가와 우뚝 멈춘다. 자신을 잘 다스리며 수행을 하다가, 질환이 생기거나 게으름이나 지침, 바쁨 등에 수행은 멈추게 마련이다. 언제 규칙적으로 수행을 했나 싶을 정도로, 절벽을 만난 것처럼 멈출 때도 있다. 수행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할 수 없는 것인가? 아직까지 수행과 일상을 따로 놓고 두 개로 보는 내 자신이 한심스럽다.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사(茶飯事), 밥 먹고 차 마시듯이 수행을 할 수 없는 게 중생일까? 아니 중생은 애초에 수행에 소질이 없는 부류인가?

요즘 삶의 질을 논의하고 잘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잘 먹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의지로 노력을 한다. 그래서 종교와 상관없이 절 집안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절 집에서 머물거나 웰빙이란 명목 아래에 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특히 현대인들의 질병은 지나친 음식물 섭취로 오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떤 의사는 고질적인 성인병을 고치기 위해 죽도록 편식하라고 한다. 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약보다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근본적으로 효과적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대사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끊을 수 있을 정도에 몸이 이를 수 있다고 보고 환자들과 함께 실행하고 도달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처럼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바로 밥을 먹는 일이다.

밥을 먹는 일처럼 수행을 해야 하는데 왜 잘 지켜지지 않을까? 스스로를 자책하며 다시 수행의 마음을 다잡는다. 여기에 밥 한 그릇에 대한 수행자의 노래가 있다.

「일발가(鉢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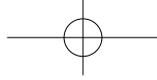
바리때 하나의 노래. 배도(杯渡) 선사가 지었다고 하는데 이름만 전해질 뿐 그 스님에 대한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없다. 당나라 말, 오대(五代)에 유행했다고 전한다. 혼란한 시기에 북극성처럼 수행의 나침판을 제시하는 노래이다. 요즘처럼 그 혼란함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수행을 밥처럼 자연스럽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진다.

내용을 보면 6조 혜능 이후의 선사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삭발을 하고 베옷을 입은 수행자들에게 올바른 수행을 당부하는 말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 밥을 먹는 일처럼 우리를 수행으로 이끌고 있다. ‘다중일(多中一)’의 화엄사상, 무분별, 무일물(無一物), 진여성, 무심(無心), 무일행(無一行)의 말들이 있다. 세상사 모든 일이 이 바리때 하나에 가득 하니 그저 삼세 여래께서 하신 것처럼 수행하라고 한다. 둘로 나누지 말고 무심으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리때에 한 가득이다. 분별심으로 가득 찬 중생을 깨우쳐 수행의 길로 이끈다. 「일발가」 끝부분에서 이 노래는 배도 선사의 견해라며 업을 짓지말 것을 당부한다.

「일발가」는 워낙 짧은 글에 속한다. 노래라고는 하지만 글자 수가 맞지 않아 투박하고 성글기만 하다. 그러나, 수행의 간절함만은 절절하다. 「일발가」는 『경덕전등록』의 마지막 30권에 수록되어 있다. 동국대 역경원의 『경덕전등록』4권에 수록된 것을 읽으면 된다.

「일발가」는 작가의 이름만 겨우 전해지는 노래이다. 이것은 무심의 선수행이 골고루 전해지고 있었다는 반증이다. 선종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선사라도 선수행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 내실을 굳건히 하는 것이 더 값어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다. 선 수행을 통한 공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력으로 다가와 내 삶의 무게를 좌우하지 않는가? 업의 무게가 무겁다고 느껴지면 지금 당장 분별의 마음을 내려놓고 무심 수행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 늦었다고 할 때, 늦은 것이 아니다. ☺



정혜결사의 본산, 송광사

박희준(사찰생태연구소 운영위원 / 한국사찰림연구소 부소장)

정혜결사의 본산



▲ 보조국사 지눌 스님

보조 지눌 스님은 1190년 <정혜결사문>을 발표하고 1197년 송광산 길상사에 주석하며 사찰을 중창하여 정혜결사의 본산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의 송광산 길상사는 이후 조계산 송광사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혜결사는

크게 세 가지 정신으로 나누어 이야기 합니다. 첫째 수심불교(修心佛敎), 둘째 선교융회(禪敎融會), 정혜쌍수(定慧雙修)가 그것입니다. 간략히 설명해 본다면 '수심불교'란 그 시대에 타락한 불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는 마음을 닦는 것이며, '선교융회'란 선과 교가 둘이 아니기에 선종과 교종이 회통한다는 것이며, '정혜쌍수'는 정과 혜 어디에도 치우침이 없이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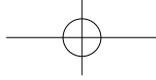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송광사는 보조국사의 정혜결사를 통하여 한국 불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한 근본도량이면서 지눌 스님을 포함하여 총 16분의 국사(國師)를 배출해낸, 한국 불교의 전통을 계승한 승보종찰입니다. 불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는 불보종찰 통도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와 함께 우리나라의 삼보종찰이라 일컬어

지고 있기도 합니다.

호남정맥과 조계산

조계산은 광주 무등산에서 광양 백운산 사이에서 호남정맥을 이루는 주요 산의 한 봉우리를 차지하는 산으로 주변에 갈미봉, 고등산, 금전산, 망일봉, 희야산, 봉두산 등 여러 산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바위를 보기 어려운 육산입니다. 조계산 역시 육산으로 산의 높이는 썩 높지 않으나 그 품은 아주 넓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광사는 조계산 서쪽 계곡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편인 동쪽에는 선암사라는 또 하나의 고찰이 소재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조계산을 동과 서로 나누어 서쪽의 산들을 송광산, 동쪽의 산들은 조계산으로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광사가 조계종의 중흥도량이 되면서 송광산, 조계산을 합해 조계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조계산은 1979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채종림으로 함께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의 한 부류로 우리나라에서 지정하는 자연공원 중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연공원법을 통해 자연공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국립공원, 시도에서 지정하는 도립공원 그리고 시군에서 지정하는 군립공원 등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조계산 도립공원은 전라남도에서 지정한 자연공원인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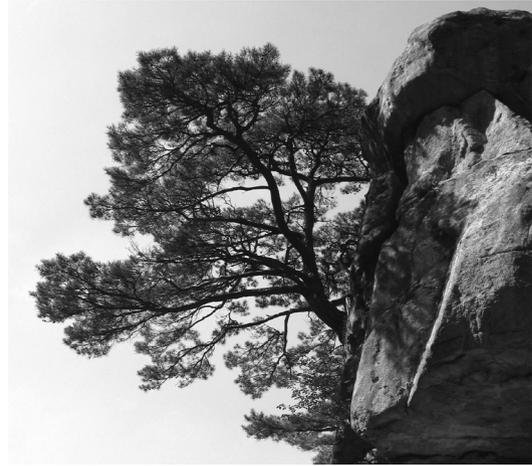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살면서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지정권자가 지정합니다. 조계산은 도립공원으로 1979년에 지정되었으니 당연히 자연생태계가 매우 양호하고, 자연경관의 보전상태 또한 양호해 많은 동식물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종림으로 지정된 것만 보아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음을 단박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채종림이란 조림용으로 적합한 우량 수종의 종자를 채집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 산림을 말합니다. 조계산이 채종림으로 지정된 것은 산 전체에 그만큼 수형이 우수하고 우량한 수목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계산은 송광사의 도량산이면서 동시에 수많은 생명을 품은 유기체입니다.

조계산 사찰림

숲에서는 나무들과 풀들의 다툼이 심합니다. 조계산에는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송광산(松廣山)으로 불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송광사 들어가는 찾길 오른쪽에는 소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비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 참나무 종류와 노각나무, 층층나무 같은 활엽수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나무들의 소리 없는 자리다툼이 보이는 듯 합니다. 속인들의 세상처럼 숲에서 살아가는 나무들도 살아남기 위한 자리다툼을 심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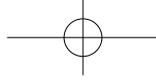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소나무들은 테르펜 성분의 향기를 내뿜어 다른 나무들이 자랄 수 없도록 타감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소나무 숲에는 웬만해선 다른 식물들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타감작용을 하는 식물이 소나무



▲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소나무

만은 아닙니다. 단풍나무도 동일한 작용을 합니다. 화단에 심어둔 단풍나무 아래로는 잔디가 좀처럼 자라지 못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걸 모르고 단풍나무 밑에 잔디가 자라도록 해보겠다고 자꾸 잔디를 심어본들 어느새 또 사라질 뿐입니다. 단풍나무가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잔디와 단풍나무 중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갈나무나 갈참나무 같은 참나무 종류가 소나무 숲에서 단 몇 개체라도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나무들이 자리를 내어주고 이사를 가야 됩니다. 물론 뿌리를 뽑아 들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나무들이 자신의 터전에 들어왔음을 알아챈 소나무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에 이전보다 씨앗을 더 많이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 참나무들이 없거나 혹은 참나무들이 자라기 어려운, 새로운 장소에 떨어진 소나무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 자리를 잡습니다. 같은 시간, 참나무와 솔숲의 어미 소나무는 마지막까지 햇빛 경쟁을 합니다만 끝내는 자신의 자리를 참나무들에게 내어주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소나무가 이사를 가는 방법입니다. 소나무나 참나무나 햇빛을 좋아하는 양수(陽樹)임



니다만 소나무 숲에 참나무가 자리를 잡으면 소나무는 햇빛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나무 종류의 성장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이사를 가고 참나무들이 자리를 잡으면 참나무를 좋아하는 다른 풀과 나무들이 덩달아 신이 나서 따라옵니다. 결국 새로운 모습의 숲이 됩니다. 조계산은 지금 옷을 갈아입는 중입니다. 소나무들이 세력을 잃어가고 참나무들을 포함한 낙엽활엽수들이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리다툼으로만 볼 일은 아닙니다. 잔디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가 쫓겨 나는 것이 아닙니다. 소나무와 잔디가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아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단풍나무의 시기를 그대로 받아주는 잔디나 다른 나무들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떠나는 소나무를 보면서 저렇듯 서로가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상생의 방법을 깨우친 각자(覺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니 말입니다.

송광사 예배공간의 나무와 풀

본래 법당 주변이나 앞마당에는 풀이나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찰의 전통입니다. 풀과 나무들이 자라게 되면 곤충과 벌레들이 나타나고 다른 동물을 불러들이게 되어 수행자들이 무의식 중에 살생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법당 앞마당을 비워두는 전통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대부분의 사찰은 법당 앞이 비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비워진 법당 앞마당에서는 야단법

석이 차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광사 대웅보전 주변은 풀과 나무들을 매우 절제하여 제한적으로 심었습니다. 일주문을 들어서면서는 커다란 삼나무와 회화나무가 임경당의 누각 건너편에 자라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평천을 질러놓은 우화각을 지나 천왕문을 들어서면 범종루가 있고 범종루를 들어서면 본존불을 모신 대웅보전이 널찍한 앞마당과 함께 보입니다. 대웅보전 좌측으로 승보전, 우측으로 지장전이 있습니다. 범종루 좌측의 박물관 사이에 매실나무가 있고, 우측으로 은목서, 금목서, 반송, 배롱나무가 줄지어 한 그루씩 서 있습니다. 대웅보전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나무의 식재를 살펴보면 공간분리의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승보전과 지장전 그리고 식재된 나무들이 함께 대웅보전의 본존불 예배공간을 호위하여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송광사에서 법당 앞마당에 식재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전각은 대웅보전 공간을 벗어나 따로 위치한 관음전입니다. 관음전 앞마당은 다양한 나무와 풀꽃으로 공간을 장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되지 못한 여러 가지 수종과 꽃들이 잔디와 함께 심어져 있어 불전에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귀화식물인 미국자리공이 들어와 자라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우리나라 사찰의 대표 격인 승보종찰에 일본 왕실의 상징인 금송을 심기도 했습니다. 승보종찰의 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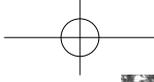
▲ 비워져 있는 대웅보전 앞마당



▲ 금목서(우), 은목서(좌)



▲ 관음전



송광사 진입공간의 나무와 풀

송광사 산문을 들어서면 널찍하게 정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넓은 황토길을 따라 깔끔하고 정갈한 정원의 모습이 보이고 야생대추나무인 뿔대추나무와 비파나무는 불교경전에 나오는 나무들이어서 전통사찰과 잘 어울리는 나무들입니다. 이 정원을 지나면서 뒤로 뻗뻗한 소나무 숲을 등지고 있는 청량각이 보입니다. 청량각은 신평천을 건너는 다리 위로 세운 누각인데 이 누각을 건너면 차들이 다니는 널찍한 길이 나옵니다. 오가는 차들이 신경 쓰여 주변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아쉽습니다. 그래서 청량각을 지나신 신평천을 건너지 않고 신평천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자길을 따라 올라가니 참 좋습니다. 그리 좁지 않은 이 길을 따라 걷다보면 느티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서어나무, 물푸레나무, 왕버들, 당단풍나무, 나도밤나무, 털팽나무, 사람주나무, 비목나무 등 다양한 나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큰까치수염, 꿀풀, 제비꽃 등의 풀꽃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길을 따라 걷다가 다리를 건너면 넓지 않은 면적의 편백나무 숲을 지나게 됩니다. 송광사 일대에는 삼나무와 편백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1970년대 산림녹화 사업의 일환으로 심어진 숲입니다. 또 스님의 말씀에 따르면 편백나무 숲 중에 80여년 된 편백나무들은 등곡 병렬스님께서 심은 나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옛 스님들은 사찰 주변에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숲을 지키고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중에 산문과 청량각 사이의 정원에 심어진 단풍나무 종류들이 늘 눈에 거슬립니다. 일본단풍나무를 개량한 홍단풍(일명 노무라단풍)이기 때문입니다. 전통사찰과 승보종찰의 격에 어울리는 수종의 선택이 꼭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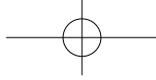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 편백나무 길

사찰림을 지키는 해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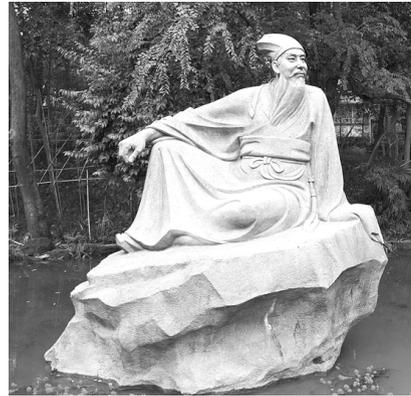
송광사 주변의 숲은 1830년 울목봉산으로 지정되었었고 1900년대에는 향탄봉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목봉산은 왕실에서 필요한 위패를 만드는데 필요한 밤나무를 키우는 산으로 지정한 것이고, 향탄봉산은 나무를 잘라 솥을 구워서 왕실로 보내는데 필요한 나무를 키우는 산을 조정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오래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스님들은 사찰을 둘러싼 사찰림을 지키고 가꾸어왔습니다. 사찰림도 사찰과 함께 수행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바뀌어 나무를 몰래 잘라가는 사람들도 없고 솥을 굽는 솥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사찰림을 편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과 행락객들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사찰이 좋은 숲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에게 사찰림에 어떻게 좋은 숲이 되었는지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해안을 우리는 키워야 합니다. ☺



꼭포소리에 깨달은 소동파

정운스님(조계종 교육아사리, 동국대 강사)



송나라 사람, 소동파(蘇東坡 : 1037~1101)는 당송 8대 문장가 중 한 사람으로 매우 뛰어난 문인이자, 정치가이다. 그의 이름은 식(軾)이며, 호는 동파(東坡)로 흔히들 ‘동파거사’라고 칭한다. 동생 소철(蘇轍)과 비교해 대소(大蘇)라 불리기도 하며 역시 뛰어난 문장가인 부친 소순(蘇洵)과 더불어 ‘삼소(三蘇)’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부친 소순, 동생 소철 역시 당송 8대 문장가로 손꼽히는 이들이다.

동파는 22세에 진사 급제를 시작으로 정치인이 되었다. 하지만 급진정책인 신법(新法)을 주장하던 왕안석의 반대파였던 그는 이내 좌천되어 항주 지방관이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동파의 10여 년간에 이르는 지방에서의 세월은 그로 하여금 문학적으로 재능을 한껏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 불교에 심취하게 하기도 하였다. 그는 좌담을 즐겨하였는데 친근한 성격으로 특히 문인들과 많은 교유가 있었다. 동파는 시와 글씨, 그림 등 다수 작품을 남겼으며, 대표작 「적벽부(赤壁賦)」는 불후의 명작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소동파는 동림 상총(東林 常總 : 1025~1091)의 법맥을 받은 재가 불자이다. 소동파에 대해 중국 선사들 사이에 여담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동파거사가 운문종 오조 사계(五祖師戒, 운문 문언의 손자뻘 제자)의 후신(後身)이라는 것이다. 진위여부에 상관없이 소동파가 그만큼 선과 밀접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동파는 정치적 당쟁에 휘말려 수많은

좌천을 당했는데, 그는 거주하는 곳마다 여러 선사들과 교유를 통해 선수행을 접하고 있다.

그가 만난 동림 상총 선사와 불인 요원 선사와의 법거량을 통해 그의 선적 세계를 보자.

소동파가 황주(黃州)로 옮겨갔을 때 여산(廬山)의 귀종사(歸宗寺)에 머물던 불인 요원(佛印了元 : 1020~1086) 선사를 만나게 되었다. 이후 운문종 선사인 불인 요원과는 도(道)와 시(詩)를 두루 나누는 절친한 도반이 되었다. 어느 날, 소동파가 선사의 방에 들어가니 의자가 한 개만 있었다. 선사가 말했다.

“오늘은 의자가 한 개밖에 없으니, 미안하지만 아무테나 앉으시지요.”

“그럼, 화상의 4대(四大) 육신을 빌려주시지요?”

“산승이 문제를 낼 터이니 알아맞히면 대관에게 의자가 되어 주고, 맞히지 못하면 대관께서 그 옥대를 끌러 주십시오.”

“네, 스님. 그렇게 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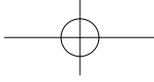
“대관이 산승의 4대 육신을 빌려 앉겠다고 했는데, 그 4대란 본래 공(空)한 것이요, 5온이란 있는 것도 아니거늘 대관은 어디에 앉겠습니까?”

소동파는 한 마디도 답을 하지 못하고 선사에게 옥대를 풀어주면서 말했다.

“화상께서 자비를 베풀어 미혹한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일체 사랑분별을 쉬고 또 쉬십시오.”

또 하루는 소동파와 불인 요원 선사가 마주보고



좌선을 하고 있었다. 동파가 문득 한 생각이 떠올라 선사에게 물었다.

“스님, 제가 좌선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부처님 같습니다.”

소동파는 선사의 말에 의기양양해졌다. 이번에는 선사가 동파에게 물었다.

“그럼 대관이 보기에 내 자세는 어떠합니까?”

“스님께서 앉아 있는 자세는 마치 한 무더기 소의 똥 덩어리 같습니다.”

불인 요원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동파거사에게 합장하였다. 그 날 집에 돌아온 동파는 여동생에게 낮에 있었던 선사와의 수행이며, 대화 내용을 들려주며 어깨까지 으쓱거렸다. 심지어는 한술 더 떠서 자기 자랑까지 늘어지게 하였다. 그러자 소동파의 여동생은 아주 태연스럽게 말했다.

“오늘 오라버니는 선사에게 비참하게 패하신 겁니다. 선사는 마음속에 늘 부처 마음만 품고 있으니 오빠 같은 중생을 보더라도 부처님처럼 보는 겁니다. 반대로 오빠는 늘 마음속에 탐욕스런 마음만 품고 있으니, 육근이 청정한 선사를 보더라도 똥 덩어리로 본 것이네요.”

소동파가 법맥을 받은 동림 상충 선사와의 법거량도 눈여겨 보자.

“제가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을 해결하고자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제도해 주십시오.”

“거사님은 이제까지 어느 스님을 만나셨습니까?”

“저는 여러 고을을 전전하며 스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아직도 공부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참 뜬을 들이던 상충이 말했다.

“거사님은 어찌 무정(無情) 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有情) 설법만을 청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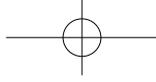
“…….”

그간 소동파는 많은 스님들을 만났지만 동림 상충 선사처럼 ‘왜 무정설법은 들으려 하지 않느냐?’는 식의 법문은 처음 들었던 모양이다. 의문을 잔뜩 품은 채 집으로 향하였다. 돌아가는 길녘, 온 마음을 기울여 선사가 던진 말을 참구하던 소동파가 폭포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득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걸음을 멈춘 그는 그 자리에서 이런 오도송을 읊었다.

시냇물 소리가 곧 부처님의 설법이요,
산의 경치 그대로가 부처님의 법신이로다.
어젯밤 팔만사천계의 미묘한 법문을
후일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겠는가!?
溪聲便是長廣舌 山色豈非清淨身
夜來八萬四千偈 他日如何舉似人

동파가 선사의 말(화두)과 씨름하는 중 깨달음의 시절인연이 도래한 것이다. 이후에도 동파는 “버들은 푸르고 꽃은 붉다.” 등 있는 그대로의 경지를 선적(禪的)으로 표현하였다. 『보등록(普燈錄)』에서는 “산과 시냇물과 대지가 법왕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山河及大地 全露法王身).” 고 하였다. 상충 선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만물이 우리에게 진리를 설해주건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파가 깨닫기 전에도 자연의 소리와 산의 경치는 불심(佛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나 선사들의 깨달은 세계를 표현하는 문구를 ‘제법실상(諸法實相)’ 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에서 유래된 말이다.

동파는 인생에 있어 정치적인 불운을 많이 겪었지만, 이런 불운 속에서도 선사들과의 인연을 통해 공부하였고, 수행의 경지까지 얻었다. 탐욕의 불길 속에서 연꽃을 키운 선지식이 된 셈이다. ☺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리! (중)

본정하 (이상춘, 봉은사 신도)

일을 하면서 난 늘 라디오 불교방송을 듣거나 불교TV를 시청한다. 타종교인 손님에게는 미안하지만 내 신앙이기에 당당하다. 가게 상호를 경전 문구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상호에 호기심 많은 행인들은 부러 가게 안까지 들어와 그 의미를 묻곤 했다. 지금은 아예 내 불명을 상호로 내걸었다. 역시 궁금해 하는 이들이 많다. 불명이라고 답해 주면 ‘본씨라는 성도 있느냐?’고 되묻는다. 그럼 난 당연하다는 태도로 말한다. 불광 본씨라고 말이다. 부처님께 귀의해 불자가 되어 받은 법명이니 ‘불광 본씨’ 아니겠는가!

이런 내 태도를 걱정해 주시는 보살님들이 있다. 자영업을 하면서 너무 내놓고 불자라고 하면 손님 떨어지지 않느냐고 말이다. 그럴 때면 난 또 이렇게 말씀 드리며 더 떳떳해한다.

“아이고~ 부처님이 설마 저 굶어 죽이기가 하시겠어요!!”

어느 날이었다. 라디오 불교방송을 들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금강선원 기초 참선 야간반을 모집한다는 멘트가 ‘훅’ 내 맘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누군가가 내 귀에 그 소식을 쑥 집어 넣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손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아, 바로 이거야! 내가 기다렸던 소식이 바로 이것이었어!” 라는 생각이 내 머리에, 가슴에 도장이 찍히듯 선명하게 아로새겨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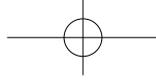
결심이 섰으니 어서 찾아가 수행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낯선 도량인지라 살짝 걱정이 되었다. 도반

들과 같이 하고 싶었다. 여러 도반에게 함께 하자 해봤는데 다들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 그렇게 하루이를 시간만 흘러보내려니 조바심마저 났다.

그 즈음 노보살님 한 분을 뵈게 됐다. 불교TV에서 법회 광경을 자주 보았던 안국선원에 나가신다고 했다. 무려 12년째 매일 선원에 나가 참선 공부를 하신다는데 인상이 어찌나 맑고, 밝던지 주변이 다 흰히 밝아지는 것 같았다. 그 날 노보살님과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나 참선 공부 이야기는 나에게 어서 빨리 수행의 길로 들어서라는 채근으로 느껴져 무척 감사했다. 노보살님 따라 안국선원으로 당장 뛰어가고 싶었지만 먼 거리에, 일을 다 마친 밤시간이 가능한 나로서는 어렵기만 한 일이었다.

금강선원에서 수행공부를 하겠다는 내 발원은 날이 갈수록 견고해졌다. 함께 할 도반 찾기가 여의치 않아 잠시 갈등도 했지만 그럼 혼자 가서 공부 하자는 결심이 선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일단 가기로 작정을 했다. 어떤 일이든 해 봐야지, 가고 봐야지 제대로 알게 되지 않는가! 머리로 생각만 해서 어찌 참선 공부가 무엇인지, 어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인가.

금강선원을 찾은 첫 날의 기억이 선명하다. 드디어 그리도 하고 싶었던 참선 공부를 하게 되어 그럴까. 두근거리는 가슴을 꼬옥 껴안고 물어물어 금강선원으로 갔다. 시간도 늦었건만 선원 건물 가득 『반야심경』 독송 소리가 번져가고 있었다.



종무실에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는 법당으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늦은 나의 참선 공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고작 3개월이었지만 기초 참선공부는 나에게 기도와는 또 다른 환희심과 즐거움, 행복 등등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갓 초등학교를 입학한 아이 같았다. 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그저 좋아서, 열심히 집중해서 잘하려고 노력했다. 간절히 원했던 공부였기 때문이었나 보다. 힘이 들기는커녕 나날이 즐겁고, 감사한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다.

나이가 오십이 넘도록 살면서 가족, 친지들과 갈등도 많았고, 짜증나는 일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것들을 다 남의 탓으로만 여겼기에 삶이 힘겹고, 고달프게만 느껴진 것이었음을 참선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러자 마음에서, 입에서, 눈에서 무시로 투드득 투드득 튀어 올라오던 그 많은 불만과 원망들이 모두 사라지는 경험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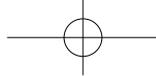
참선 공부의 효험은 나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게 되는 것 같다. 그 3개월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게 한 마디씩 건넸다.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요즘 좋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인지 얘기 좀 해줘요!” 등등. 나는 그저 종전처럼 일하고 있었을 뿐이다. 요즘 내가 무슨 공부를 하러 다닌다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말이다. 주변분들의 반응에 난 다시 한 번 참선 공부를 하게 된 인연에 감사했고 더 열심히 하고자 애썼다.

그러데 줄음 조복받기가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같이 공부하는 도반은 줄지도 않고 열심히 정진하건만 나는 속절없이 줄음에 빠져들기 일쑤이고 몸으로 오는 경계 때문에 곤혹스러워 찢찢했다. 그러다가도 선방만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온 몸이 시원하고 가뿐하고 정신도 초롱초롱 맑아진다. 정신을 차렸다 싶어 다시 좌복에 앉으

면 또 영락없이 졸고, 힘들어지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워 그저 좌복에 앉고 또 앉았다. 2008년 동안거와 하안거 두 철을 그렇게 지냈다. 한 순간도 포기할까 고민하지 않았다. 참 열심히 했다. 살짝 신비한 체험과 경계를 경험하기도 했다. 지나고 보니 그것들은 모두 공부중에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그 때는 참선 수행과정전 공부를 같이 했다. 함께 공부한 도반들도 많았다. 그들 덕분에 더욱 분발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 같다.

인연이란 참 묘하게 찾아온다. 더러 내 가게를 찾아오던 한 손님과 그날따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됐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불교로, 참선 공부로 이어져갔다. 당신 남편거사가 벌써 수년째 봉은선원에서 수행정진을 열심히 한다는 것이다. 내 가게와 가까이 위치한 봉은사에 선원이 있다니 얼마나 반갑던지 난 선뜻 그 손님에게 부탁을 했다. 봉은선원에 방부를 들일 수 있도록 거사님께 소개해 주시라고 말이다. 부처님께서 더 열심히 정진하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 같았다.

그것이 2009년의 일이다. 지난 두 철을 함께 공부했던 도반 한 분과 난 그 이후 봉은선원으로 옮겨 참선공부를 하고 있다. 봉은선원에는 선감스님이 계셨다. 줄음을 이겨내지 못해 애를 먹던 나로서는 선감스님이 죽비로 자주 경책해 주시고, 이끌어주시니 부끄럽기도 했지만 그보다 감사한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 어찌하면 줄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지 부러 스님께 면담을 신청해 여쭙기도 했다. 스님은 잠을 충분히 자고 와 수행하라고 하신다. 좌복에 앉아 졸면서 오랜 시간 있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며 단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으며 정진하러 노력하라고 거듭 당부하시면서 공부에 도움이 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다. ㉞ <계속>



토마스 한라한 교수 설계안 당선 국제건축설계 지명공모

사업단장 박희승

● 5월 중순, 사업단장과 건설본부장이 대구지방 환경청을 방문하여 명상마을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서 환경 평가를 속히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6월 중순, 상임추진위원장 의정 스님의 지시로 봉암사 주지 원광 스님과 명상마을 추진위원회 홍보위원 헤민 스님, 그리고 사업단장과 건설본부장이 청와대를 방문,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한국 전통 명상을 국제화하기 위한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약 한 시간 가량 이어진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 민정 수석 재임 시 내외분이 스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봉암사에서 2박3일 여름 휴가를 보냈고, 그 이후에 봉암사 노스님 요사채와 공양실 개축을 도와준 일도 있다는 등 시종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자리를 마무리하며 정태호 비서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명상마을 취지에 공감하며 앞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다.” 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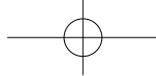
헤민 스님의 청와대 방문 소식을 들은 진성준 정부비서관은 직접 면담장소로 찾아와 잠시나마 자리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 6월 28일, 문경세계명상마을 국제건축설계지명 공모전 심사가 조계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1차 전문가 심사, 2차 추진위원회 심사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먼저 전문가 심사는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받은 40여 명 전문가들 중 당일 오전 7시, 4개국 출품 작가팀이 추첨을 통해 뽑은 10명의 전문가로 구성, 오후 1시부터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회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2차 심사에는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이신 혜국 스님, 공동추진위원장인 의정 스님, 수불 스님, 자문위원인 월택 스님, 도후 스님, 현고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그리고 추진위원인 월암 스님, 미산 스님, 화광 스님, 봉암사 주지 원광 스님, 승혜 스님, 정구정 전 전국세무사회장, 또한 집행위원인 원근 스님, 각산 스님, 인선 스님, 경상북도와 문경시를 대표하여 문경시 고윤환 시장과 문경시의회 김지현 의장, 경북도청 도시계획과 권기섭 과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1, 2차 심사위원들의 압도적인 선택으로 미국 프렛대학 한라한 교수와 현대종합설계팀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작 사진 참조).

이어 오후 5시에는 당선작 발표 기자회견회가 역시 같은 장소에서 있었습니다. 교계 신문 방송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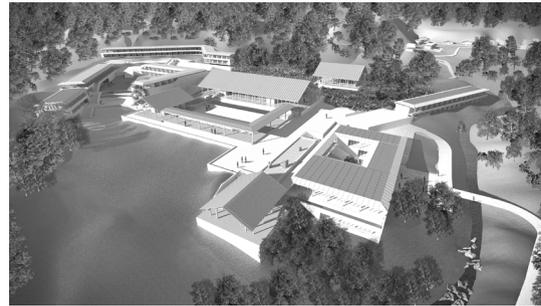
자는 물론 중앙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들이 두루 취재, 교계 신문 방송은 물론,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등과 경북, 문경 지역 신문에도 관련 기사가 크게,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당선자, 한라한 씨는 미국 뉴욕에서 활동 중인 프렛대학 건축과 교수로 우리에게는 특히 원불교 미주본부의 원다르마센터를 설계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미국 건축가협회 뉴욕지부에서 22차례 디자인상을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은 한라한 교수의 설계안은 추진위원회의 건축 방향과 지침을 충실히 이해하여 수행 편리성과 목재와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 친환경 에너지 효율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7월 초, 사업단은 명상마을 설계에 당선된 현대종합설계팀과 실무 협의를 시작했으며, 7월 15일에는 사업단과 현대종합설계팀이 문경시 문화예술과를 방문하여 과장 이하 실무담당자들과 사업 승인, 설계 인허가, 착공에 따른 세부 사항과 일정을 점검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상마을 건립을 위한 발걸음은 금년 10월 말 기공식을 목표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명상마을 부지 도시계획법상 지구단위 변경 추진 건은 여러 법규에 걸리어 어려움이 많아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가 생길 때마다 도와주는 분들이 나타나 수월하게 나아가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마지막 고비 한, 두 가지만 해결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사업은 국비 30억 확보와 자부담 30억 합하여 총 60억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 진입도로 건설비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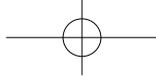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당선자, 토마스 한라한 교수 설계안 조감도

억도 확보하였으나, 아직도 자부담 10억과 부지 내 기반공사비 약 10~20억 확보가 필요합니다. 우리 추진위원회는 자부담 10억원 확보를 위해 신심 돈독한 불자들의 시주 인연을 기다리며 아울러 기공식에 즈음하여 모연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립선원 봉암사에서는 진입도로 및 부지 주변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취지에 공감하여 사부대중의 후원 보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쌍계사 총림 방장이신 고산스님께서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건립에 1천만 원을 보시하셨습니다. 경북 상주의 한 스님께서서는 명상마을 취지가 너무 좋다면서 건립에 보태라면서 당신이 일군 토굴을 법인에 기증하실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혼연한 시주 인연이 이어지고 있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대 인류에게 가장 수승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는 간화선을 대중화, 국제화하기 위해 봉암사와 선원수좌회가 직접 추진하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사부대중의 참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뜻있는 분들의 십시일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후원회원이 되시는 분들께는 명상마을 프로그램 참여 할인과 시주자 명단을 동판으로 새겨 영구히 보존하고자 합니다. ☺



● **미국 토마스 한라한 교수 설계안 당선**
국제건축설계지명공모 심사, 6월 28일 시행

‘빛’과 ‘단순함’이란 설계언어로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을 곧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국제건축설계지명 심사’가 지난 6월 28일 실시되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심사 결과 심사위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미국 프랫대학 건축학과 토마스 한라한 교수와 현대종합설계 팀의 설계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한라한 교수 대표작으로는 제10교회, 그린위치 빌리지, 프랫대학 기숙사 레지던스 홀, 원다르마 센터 등등이 있습니다

● **무산, 전주, 고산 큰스님 특별후원**
익명의 불자 후원도 계속 이어져

여름철 무더위와 폭우는 우리를 힘들게,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만난 어느 한 여름날의 무더위, 장대비는 감사하고, 시원한 석간수 같았습니다.

내원사 금강암의 전주 스님의 수좌복지 후원금 1천만 원, 백담사 조실 무산 스님과 쌍계사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의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금 각각 1천만 원 그리고 비가 퍼부어 내리던 날 사무실까지 찾아와 무려 5백만 원이라는 거금을 노란 봉투 한 장에 담아 불쑥 전해주는 막무가내로 그냥 가버리신 어느 보살님, 후원계좌에 이름 없이 번번이 입금만 해주는 분들. 그리고 매월 꼬박이 후원금과 수좌복지회비를 전

해오는 스님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시는 모든 후원금, 귀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청정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2017 하안거에도 의료비 지원 계속**
7월 14일 현재 23명, 3천여만 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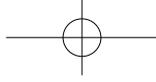
정유년 하안거도 해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올 하안거에 들어서는 7월 14일 현재까지 총 23명의 수좌스님들에게 3천여만 원(₩30,369,020 원)의 의료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하안거 지원 결산은 동안거 결제일 직전까지이므로 앞서 밝힌 내역은 중간결산임을 양지 바랍니다. 더불어 올해의 의료비 지원은 총 67명, 80,124,370원으로 집계되었음도 함께 알려 드립니다.

●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 참가자 모집**

오는 9월 15일~9월 17일까지, 수리선원에서 수좌 스님들로부터 직접 참선 수행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도 마련됩니다.

제4회 간화선 단기안거가 2017년 하안거 직후인 9월 15일 입제됩니다. 예년과 같이 2박 3일 일정으로 양평에 위치한 본 법인 산하 수리선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단기안거에 참가를 원하는 분은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참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9월 15일(금) 오후 2시 ~ 17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수리선원(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소재)
- 참가비 : 회원 10만 원 / 비회원 12만 원
- 참가 요령 : 참가 신청서 접수 후 참가비 입금 순서에 따라 선착순 30명 마감



●●● 후원 현황

유한수	유한수	유현숙	유현정	유갑수	윤간란	윤경순	윤경순	윤귀자
윤성덕	윤성환(이선철)	윤라현	윤무희	윤미선	윤민호	윤복기	윤산림	윤상란
윤영숙	윤영자	윤소희	윤수빈	윤숙희	윤순덕	윤신자	윤언정	윤영수
윤종숙	윤종희	윤정희	윤태교	윤재운	윤정숙	윤종문	윤종숙	윤종현
이경녀	이경미	이경숙	이계순	이경숙	이갑수	이건호	이경낙	이경애
이규덕	이규홍	이금수	이금순	이금순	이광규	이광순	이광재	이광훈
이남순	이남연	이남재	이대식	이대원	이덕희(유우진)	이동근	이동석	이동석
이동희	이래경	이래교	이리하	이린순	이말순	이명래	이명숙	이명순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조	이명현	이문수	이문자	이문자	이미숙
이미숙	이미순	이미영	이미옥	이미자	이미정	이미주	이미희	이미희
이민경	이민희	이병희	이병조	이병철	이병철	이복순	이복순	이복순
이봉류	이부열	이산옥	이성림	이성숙	이성순	이성애	이성익	이성정
이상준	이상진	이상희	이상현	이상현	이상현	이선자	이선자	이선자
이선정	이선희	이성림	이성순	이성우	이성훈	이성희	이세용	이소윤
이수열	이수영	이수자	이숙영	이숙자	이숙희(이민주)	이숙희	이숙희	이수현
이수덕	이수영	이수애	이수영	이수운	이수자	이수자	이수현	이승경
이승민	이승원	이승자	이승훈	이승훈	이시연	이신규	이아름	이아희
이연수	이연숙	이연옥	이연옥	이연희	이영란	이영림	이영미	이영선
이영숙	이영선	이영아	이영애	이영애	이영애	이영옥	이영자	이영자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영희	이예원	이예진	이유형	이유자
이윤신	이윤태	이윤옥	이윤경	이원남	이유진	이윤자	이윤주(이창희)	
이윤진	이윤희	이윤미	이은미	이은서	이은숙	이은숙		
이은숙(이유진)	이은실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혜	이은화	이은희	
이은진	이이선	이인실	이인희	이임선	이재순	이재선	이재선	
이재선	이재연	이재영	이재일	이재일	이정래	이정래	이정미	
이정민	이정민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순	이정순	이정순	
이정애	이정양	이정원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정희	
이종순	이종식	이종애	이종옥	이종재	이종철	이종훈(박소연)	이주강	
이주현	이주현	이주영	이주순	이지연	이지연	이지연	이진숙	
이진순	이진옥	이진은	이진희	이진화	이창용	이창현	이창희	이현숙
이준실	이준영	이준자	이필복	이태규	이토동	이필용	이학길	이현선
이환숙	이환영	이환선	이환숙	이환숙	이환숙	이환숙	이환숙	이현기
이현미	이현선	이현숙	이현자	이현정	이현주	이현희	이혜선	이혜정
이혜정	이혜정	이호길	이호준	이호준	이호준	이호준	이호준	이호준
이후건	이후근	임관순	임경주	임미순	임미영	임석희	임서형	임소악
임소숙	임소숙	임인숙	임유분	임인숙	임정숙	임지형	임창희	임창희
임재복	임철상	임정자	임준옥	임철순	임현규	임해숙	장규섭	장기순
장기현(이영미)	장동욱	장명순	장미정	장민정	장병희	장소원	장순숙	장순숙
장수동	장인자	장영자	장유영	장은희	장은희	장인숙	장인숙	장인숙
장재민	장정호	장태남	장현실	장희정	장근내	장경찬	장근숙	장근숙
장영옥	장병열	장미나	장민기	장민제	장병규	장복량	장복량	장복량
전상은	전상희	전성화	전소빈	전소영	전소옥	전영자	전영자	전영자
전옥숙	전우정	전영숙	전은희	전재숙	전희애	전광수	전광수	전광수
전혜숙	전관정	전경숙	전경숙	전경숙	전경숙	전문순	전문순	전문순
정나현	정현화	정숙희	정동숙	정동숙	정병수	정문순	정미련	정미련
정미숙	정민희	정민희	정병주	정병주	정병수	정석만	정선영	정선영
정성신	정성희	정수민	정수연	정수정	정수녀	정순재	정영희	정영희
정영희	정영희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선
정영준	정영준	정영자	정영진	정은선	정은주	정의남	정인선	정인화
정일화	정재연	정재숙	정재순	정재현	정재현	정정숙	정정숙	정정숙
정정자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정희
정천아	정준희	정해림	정해연	정현미	정현자	정혜리	정혜선	정혜선
정혜정	정희정	정희자	조경희	조규탁	조기원	조문구	조문구	조문구
조은숙	조영숙	조미숙	조병기	조복순	조선주	조선배	조선배	조선배
조영덕	조영덕	조영자	조에서	조용호	조원준	조윤진	조은숙	조은숙
조정남	조정안	조정숙	조정숙	조정자	조정현	조지영	조창호	조철호
조해리	조해강	조혜순	조흥근	조흥준	조화숙	조화제	조희덕	조영애
주영옥	주병열	주숙희	주연희	주영민	주효성	지민주	지승구	지연숙
지유선	지하순	지해연	지화자	진영선	진병선	진영옥	진주하	진정현
차준익	차현순	차현실	채수희	채수향	채은희	채정연	채정연	채정연
천대중	천명옥	천미숙	천봉호	천양자	천연금	최경수	최경순	최경민
최경희	최경희	최구식	최귀순	최금재	최금진	최기숙	최덕순	최동기
최말선	최명주	최미성	최미정	최복녀	최복녀	최보금	최복녀	최복례
최상준	최선희	최성민	최성희	최순자	최수원	최수자(안대찬)	최수향	최수향
최순금	최순옥	최순자	최순철	최신자	최영순	최영준	최영희	최영희
최영희	최옥부	최원락	최원식	최윤	최은숙	최은정	최을동	최은희
최재윤	최재현	최정숙	최정희	최정자	최정자	최종대	최종호	최종호
최지원	최진민	최진선	최진영	최창민	최재경	최전락	최전분	최준화
최태영	최태자	최해숙	최해중	최현규	최현숙	최혜선	최혜연	최혜연
최효덕	최희숙	추신자	추정희	탁병수	탁보금	하미순	하미순	하수연
하숙영	하순자	하숙영	하숙현	하영의	하재후	하중현	하주연	한영숙
하진영(정혜영)	하희진	한경호	한귀선	한덕원	한덕자	한도겸	한도겸	한은숙
한명숙(이재영)	한명숙(이재희)	한명희	한문숙	한미경	한복남	한은숙	한은숙	한은숙
한수옥	한순옥	한연숙	한영경	한영숙	한영숙	한숙희	한숙희	한숙희
한은화	한일동	한정남	한정자	한준영	한화성	함숙희	함숙희	함숙희
함은미	함일규	허남련	허명희	허미숙	허성원	허숙희	허유림	허인숙
허지은	허진왕	허희옥	현광길	현명자	현명자	현숙희	현숙희	현숙희
홍영자	홍희경	홍경효	홍근자	홍귀옥	홍미옥	홍순찬	홍순찬	홍순숙
홍영란	홍옥순	홍유순	홍은표	홍정자	홍정자	홍태순	홍태순	홍영숙
황경은	황규삼	황금삼	황두환	황미숙	황미자	황성희	황수진	황영우
황은선	황인숙	황인숙	황재운	황정순	황준석	황준원	황태분	황태분
황태영(황하기)	황희선	황희선						

수좌복지 일시 특별후원 불자

고 최상조 / 김성조 / 오정원 부동산 / 이강희 / 청담공동타운

수좌복지 계좌이체 정기후원 불자

강순교	김지형	문필순	변선자	오기웅	이성화	임영란	최영자	권경란
김춘연	박문주	서미숙	오정복	이연숙	장희선	최오복	권도영	김준희
박영수	서승원	오현지	이영선	전지형	최종옥	김경옥	김판순	박재남
서지미	육미숙	이윤부	정상익	한순문	김동하	김학순	박정옥	손경숙
유순희	이지민	정정희	한정자	김영희	김희숙	박지연	손광자	유자순
이재영	정진향	허순복	김미옥	김현숙	박순옥	송혜연	유희자	이지윤
정희선	홍재현	김선아	김호숙	배수정	송화순	이계자	이창훈	조명환
황경희	김송자	나정옥	배진숙	안일철	이남석	이현민	이창훈	황성문
김은희	류인주	백성호	안태주	이범숙	이희	차연진	황성문	김경옥
문영호	변선심	양미숙	이범태	이희숙	최미란	익명1인		

일시후원 불자 및 단체

강영화	김현숙	손영란	신성희	심물도	심재순(주혁찬)	우순자	유호동
유효동	유희진	윤경자	이영미	이향자	이희자	임래식	정영택
조수민	조수아	익명1인					정준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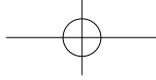
봉양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지정 계좌후원 스님, 불자

백담사 무금선원 조실 오현스님
 쌍계사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대혜스님 덕암스님 보안스님
 김재철 김기숙 강명화 김명애 김미옥 김태현 문점순 배덕기 이향황
 이희숙 장희석 장희진 정용희 황영옥

봉양사 문경세계명상마을 지정 cms후원 불자

강남주	강무형	강미선	강정구	강정희	강효호	고용희	공정숙	구인순
권영애	권순택	김경숙	김경아	김동영	김명숙	김명희	김명숙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옥	김민정	김복순	김삼용	김선미	김선옥	김선희
김순연	김영미	김영애	김영환	김영희	김옥덕	김옥선	김옥선	김용철
김용택	김위자	김인순	김재옥	김경담	김정자	김정호	김제숙	김종순
김진숙	김창수	김태연	김필연	김향순	김현숙	김희순	문남혜	박대서
박영숙	박미소	박일수	박병영	박소정	박소현	박희순	박희순	박영화
백미정	백영자	변경순	서연희	석미경	성은화	성미경	손사남	손이영
신민덕	손희숙	송옥희	송정숙	신경호	신영순	신선자	신인자	신점순
신현숙	안대순	안지숙	오경화	오유진	은서연	이광민	이경숙	이숙희
유필숙	윤송희	윤영자	윤태규	은영숙	은서연	이광민	이경숙	이숙희
이나경	이덕자	이희하	이미숙	이미순	이미정	이희선	이정림	이정희
이선희	이순이	이신규	이신순	이은미	이희선	이희선	이재동	이정희
이지은	이정복	이향림(박혜령)	이현우	이현우	임금순	임금순	정나현	정명숙
장말숙	장명순	장소원	장안심	장영금	장재만	정진호	정준희	정현숙
정희경	정미숙	정영선	정유자	정재만	조석우	최미정	최준희	최순이
정희숙	정주연	조희숙	조희강	조희숙	채승희	최명희	최준희	최순이
최영민	최영민	최희강	최희강	최희강	최희강	최희강	최희강	최희강
황하기	황희선							





후원신청서

스 님 <input type="checkbox"/>	정 기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회비 납부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후원 <input type="checkbox"/>				
	일 시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input type="checkbox"/>					
불 자 <input type="checkbox"/>	정 기 <input type="checkbox"/>	수좌 복지후원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input type="checkbox"/>				
	일 시 <input type="checkbox"/>						
※ 개인 정보 난은 정기, 일시 후원 모두, 꼭 기재해 주십시오.							
개 인 정 보	스 님	법 명	속 명				
		승적번호	은 사				
		연 락 처	분 류	비구 <input type="checkbox"/>	비구니 <input type="checkbox"/>	사미 <input type="checkbox"/>	사미니 <input type="checkbox"/>
		거 주 지					
	불 자	성 명	법 명	분 류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연 락 처					
주 소							
※ 계좌이체 하실 분은 아래 cms신청 난에 기재 하지 마십시오. ※ 주민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하십시오							
c m s 신 청	계좌 정보	은 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번호				
	후원액	월 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 1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2만5천원 <input type="checkbox"/>		
		월 3만원 <input type="checkbox"/>	월 5만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이체일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1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5일 <input type="checkbox"/>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후원내역	땅 1평	10만원 <input type="checkbox"/>	서까래	300만원 <input type="checkbox"/>			
	땅 10평	100만원 <input type="checkbox"/>	기둥(개당)	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땅 100평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대들보	1,000만원 <input type="checkbox"/>			

상기 기재 사항은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이며
cms 방식을 통한 자동이체 출금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불기 25 (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후원회비는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동참 내역 이외의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신청서는 팩스로 전송해 주시거나 www.seonsujoa.org에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보내실 곳 : 팩스 02-923-9967, E-mail : seonsujoa@daum.net
- 보다 자세한 사항 문의는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전화 02- 922-9967로 해주십시오.

	<후원계좌 안내>	
	수좌 복지회비 납부(스님, 사찰 전용)	농협 / 351-0441-2332-63
	수좌 복지 후원	농협 / 355-0015-6340-13
봉암사 문경세계명상마을 건립 후원	농협 / 355-9967-9967-43	(재)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

어찌다 고금의 기연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려 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단박 깨쳐 생사의 바른 뜻을 꿰뚫어 버려라.
마치 눈앞에 수만 길이나 되는 장벽이 서 있는 것처럼
오래도록 공안을 참구하다가 홀연히 의심덩어리를 타파하라.
그러면 백천만 가지 공안의 심천(深淺), 난이(難易), 동별(同別)을
한꺼번에 뚫어 자연히 남에게 묻지 않게 될 것이다.

但遇著古今因緣 都不要將心解會
只消舉起一箇頓在面前 發起決要了 生死之正志 壁立萬仞
與之久遠參去 驀爾撞破疑團。
則百千萬則公安 深與淺難與易 同與別一串穿過
自然不著問人也。

- 天目中峰 禪師, 『山房夜話』上卷

